석사학위논문

초등학생의 종교의식

- A교회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안 영 숙

2003년 12월

초등학생의 종교의식

- A교회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조 성 윤

이 논문을 사회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12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안영숙의 사회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3년 12월

ABSTRACT

School Children's Awareness of Relig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Protestant elementary schoolers looked at religion.

There are numerous and diverse religions in Korean society. Every religion gives people hope, promises their salvation and insists on its eternity and absoluteness, being strongly exclusive against other religions or denominations. It's not easy to acknowledge other religions while seeing its own dogma and belief as the only absolute things.

Among Korean religions, Protestantism is most active and strongly exclusive. Many Protestants are exclusive and consider their religion superior, and believe only those who believe in God could be saved, which is called elitism. Such a religious exclusiveness is one of the primary factors to negatively affect social relations in multidimensional society. That triggers conflicts between Protestants and Buddhists, which is likely to have a far-reaching unfavorable impact on overall Korean society. Generally, interreligion conflicts take place more often when other social conflicts exist together.

Lots of Protestant elementary schoolers says, with confidence, that anybody who doesn't believe in Jesus are devil or go to hell, and it seems that such an exclusive idea of children might cause a grave social problem when they become adults. As education exercises a direct influence on children's consciousness, it's needed to pay attention to how their religious awareness begin developing.

Given the importance of childhood education, it's first attempted in this study to investigate church education before looking into school children's religious consciousness, since it's easier to approach church education than to regular school or social education.

Conducting a survey was one of the good ways to find out how elementary school youngsters perceived religion, but in-depth interview was utilized instead.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some selected Sunday school pastors, teachers and children, as it's hard to have an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n-depth interview with many peopl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children's religious consciousness was most affected by stereotyped church education and people. The twelve disciples-based grouping, classroom ambience, weekly bulletin, welcome ceremony for newcomers and acceptance of newcomers as regular Sunday school members were all standardized, affecting their religious idea, and pastors in charge of education and Sunday school teachers also impacted on that. Pastors were separately responsible for each department, providing systematic religious education through sermon.

School children are apt to imitate their teachers, and the existing educational settings drove them to view their religion as the only thing without trying to understand other religions.

The church investigated in this study was one of the typical examples to teach children the absoluteness of the Christianity. The better-educated teachers accepted religious pluralism, and those who were less educated or younger insisted on its absoluteness. Although the former group implicitly acknowledged other religions, they were reluctant to express it explicitly, and those who attended church more often and had a firm belief in Christian dogma had a stronger tendency to see the Christianity as the only religion.

Christian adults are as same as the elementary schoolers. If school children continue to be educated that way, religious exclusiveness and mutual disapproval are expected to be compounded in our society, and reinforced religious education will lead to stronger exclusiveness, and our society will be thrown into severe conflicts.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n the era of uncertainty, religion is relief for people and their salvation. Different religions will be generated to address people's needs, and more children have a religion than ever before. To minimize social conflicts and attain unity, people should be educated to approve other religions from childhood. This type of religious education cannot be fulfilled only by church or family, and that should be handled as part of regular school education. School should teach children that every religion is worth, and then they will learn to better understand others, be considerate and be open to other religions.

〈 차　　례 〉

Ⅰ. 서　론 ····· 1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1
2. 연구 내용 및 논문의 구성 ····· 3
가. 연구 내용 ····· 3
나. 연구 대상 ····· 3

Ⅱ. 이론적 배경 ····· 5
1. 종교 다원주의 ····· 5
2. 기독교의 종교적 배타성 ····· 9
3.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개신교와 주일학교 교육 ····· 10

Ⅲ. A 교회의 주일학교를 통해 본 종교의식 ····· 13
1. 종교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화된 틀 ····· 13
가. 12제자에서 비롯된 반 구성 ····· 13
나. 교실분위기 ····· 26
다. 주보 ····· 27
라. 신입자 환영 및 등반 ····· 31

2. 종교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 32
가. 담당 교역자 ····· 32
나. 주일학교 교사 ····· 35

3. 초등학생의 종교의식 ····· 43
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가요 ····· 43
나. 뉘우치면 용서받고 하나님나라에 가요 ····· 47
다. 예수님처럼 살겠어요 ····· 47

Ⅳ. 결　론 ····· 49

참고 문헌 ····· 53

부　록 ····· 5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차례〉

<표 1> 조사 대상자 ····· 4
<표 2> 교회학교 조직 ····· 14
<표 3> 교재의 구성 ····· 18
<표 4> 신입반 교재의 내용 ····· 20
<표 5> 주일학교의 아동부 주일예배 차례 ····· 23
<표 6> 주일학교 유년부 연간 계획 ····· 25
<표 7> 주일학교 초등부 연간 계획 ····· 25
<표 8> 주일학교 소년부 연간 계획 ····· 26
<표 9> 교회에서의 예산 편성 자료 ····· 29
<표 10> 교육부 예산 ····· 29
<표 11> 교회학교의 세부 예산 ····· 30
<표 12> 주일학교 교사 현황 ····· 3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차례〉

<그림 1> 유년부의 공과공부 ····· 16
<그림 2> 초등부의 공과공부 ····· 16
<그림 3> 유년부 신입반교육 ····· 32
<그림 4> 초등부 신입반교육 ····· 32

Ⅰ. 서 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우리가 농경생활을 하던 옛날에는 사람이 태어나면 평생 한 곳에서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오늘날은 산업사회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나 그 외의 다른 이유로 사는 곳을 옮기는 경우가 많아서 한 곳에 정착하여 살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 이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대상황은 사람들에게 종교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 종류가 다양하여 다원화된 사회에서 살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도 수많은 종교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종교가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원을 약속한다는 전제 아래 어떤 종교든 각기 그 나름대로의 영원성과 절대성을 주장하게 되며 다른 종교와 종파들에 대해 강한 배타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교리와 신념체계를 절대화하면서 타종교를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국 개신교는 한국의 종교 가운데 가장 적극적이며 강한 배타성을 지닌 종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적극성은 때때로 타종교에 대한 갈등과 공격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제 겨우 1학년 어린이에게서 타종교를 매도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무의식 중에 일어나고, 때때로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는 불상 파손 사건, 사찰 방화사건, 무교와 개신교의 갈등, 단군상이나 불상을 훼손하는 일 등은 개신교가 자신의 종교에 대한 절대성만을 강조하고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대표적인 갈등 현상이다. 이런 일들은 작게는 개신교인과 불교인의 갈등을 초래하지만 크게 본다면 한국사회 전체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종교간 갈등은 다른 사회적 갈등요소들과 중첩될 때 자주 나타난다.

사실, 주변에서 개신교 신도들의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행태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경우를 보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부모를 섬기는 효사상에서 비롯된 제사지내는 풍습을 미신이라고 단정짓는 데서 오는 친척들 간의 갈등, 타종교를 무조건 배타적으로 여기고 무시하는 우월성, 개신교를 믿는 사람끼리의 결혼, 초상집에 가서도 절을 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선민

의식 등이 특히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만연해 있다. 그만큼 종교적인 배타성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사회관계를 지속시키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더구나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악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개신교 초등학생들을 자주 보게 된다.

이런 강한 배타성을 가진 종교의식이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다면 큰 사회문제로 이어질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릴 때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직접적인 의식 형성의 기제로서 작용하므로 어릴 때의 종교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위험사회'(울리히벡, 2000)에서 종교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질 것이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오직 자기가 믿는 종교만 중요하고 다른 종교는 모두 나쁘다는 종교의 절대성에 관한 교육을 받고, 이런 식의 종교교육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수많은 종교를 믿는 여러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 더욱 배타적이 될 것이다.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불안한 사회가 되어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종교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종교를 위해서 있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신교 초등학생들의 종교의식 형성과정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주일학교 교육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교육이라는 건 어릴 때의 기반이 중요하므로 주일학교 중에서도 초등학생의 종교의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종교의식을 조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 방법보다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많은 사람을 심층 면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주일학교와 관련된 몇 사람을 선정하였다. 이들과의 만남은 주일학교를 통해 내면에 형성되는 종교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구이자 자료수집의 방식이었다.

현 시점에서 어린이들의 종교의식을 파악하고, 어릴 때부터 바른 종교교육을 통하여 상대방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은 다종교 사회인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한국사회의 3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개신교, 가톨릭, 불교의 어린이 종교의식을 조사하여 비교해보는 일은 뜻 있는 일이 될 것이나, 이 논문에서는 우선 개신교 어린이들의 종교의식만을 조사하여 타종교에 비해 개신교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2. 연구 내용 및 논문의 구성

가. 연구 내용

위의 목적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기초로서 종교다원주의와 기독교의 종교적 배타성,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개신교와 주일학교 교육에 대하여 살펴보고, 종교교육을 통해 종교의식을 들여다보는 것을 주 연구내용으로 한다. 주일학교 교사와 교역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종교의식을 살펴보고, 주일학교 어린이의 관찰 및 면담을 통해 종교의식을 살펴본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반 구성, 교실공간, 주보, 신입자의 환영 및 등반에 대해 정리하였다.

둘째, 주일학교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담당 교역자와 주일학교 교사를 종교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 다루었다.

셋째, 주일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의 종교의식은 실제 어떠한가를 이들과의 면담과 관찰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 연구는 개신교 초등학생들의 종교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2장에서는 종교다원주의와 기독교의 종교적 배타성,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의 개신교와 주일학교의 교육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제시한다.

3장에서는 A교회의 주일학교를 통해 본 종교의식에 대하여 기술한다. 이 연구를 실행하기 위하여 제주시내 A교회를 선정하고, 조사대상자를 선정, 면담 조사하여, 녹취록을 작성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한다.

4장에서는 본론을 요약하고 글을 마무리 짓는다.

나. 연구 대상

이 연구는 개신교인 제주시내의 A교회 주일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주일학교 중에서도 교육 1부의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아동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교회의 교회학교 조직[1]을 보면 나이에 따라 다양하게 조직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일학교 중에서도 초등학생

1) 교회학교 조직은 <표 2>를 참고할 것

에 해당하는 1~2학년, 3~4학년, 5~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데 여기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을 합하여 주일학교 아동부라 부른다.

연구 대상은 이 교회에 다니는 제주시내 J초등학교 학생 5명을 관찰과 면접의 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밖에 교회에서 만난 여러 명의 어린이들이 물음에 응답해 주었다. 그리고 다른 개신교회에 다니는 J초등학교 어린이 10명을 관찰과 면접의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주일학교 아동부 교사 5명과 담당교역자 2명을 면접하고 녹취하였다.

<표 1> 조사 대상자*

면담대상	이 름	담당부서	학 력	주일학교 교사 경력	비 고
교사 01	정××	유년부	대학생	4년	대학생(4학년)
교사 02	오××	소년부	대학원졸	20년	초등학교 교사
교사 03	강××	초등부	중졸	8년	주부
교사 04	강××	초등부	대졸	5년	초등학교 교사
교사 05	양××	소년부	중졸	30년	주부
교역자 06	박××	유년부	대학원졸		목사
교역자 07	민××	초등부	대졸		전도사
어린이 08	김××	소년부	6학년		J초등학교
어린이 09	박××	초등부	3학년		J초등학교
어린이 10	김××	유년부	1학년		J초등학교
어린이 11	홍××	유년부	1학년		J초등학교
어린이 12	고××	유년부	1학년		J초등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이 외에도 A교회에서 만난 어린이들과 J초등학교 어린이 10명을 관찰 및 면접 조사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종교 다원주의

종교의식은 신념적 차원과 종교적 조직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렌스키는 종교의식을 두 차원, 즉 집단 참여 혹은 사회관계의 차원과 믿음 혹은 정향의 차원으로 나눈다(lenski, 1963: 18-26). 집단참여 혹은 사회관계의 차원은 다시 협의체적 참여와 공동체적 참여로 나뉘어지며 종교적 정향의 차원은 교리적 정통성과 경건성으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렌스키의 척도는 같은 종교의 신도라도 종교의식의 각 차원의 정도에 따라서 사회적인 태도가 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글록(C.Y.Glock)과 스탁(R. Stark)은 교회 참석과 관계된 측면에 초점을 둔 사회학적 연구와 개인의 종교적 체험에 초점을 둔 심리학적 연구를 통합한 전체적 접근을 시도해 다섯 가지 차원을 제안했다(Glock and Stark, 1978: 253-261). 첫째, 종교적 신념을 다루는 이념적 차원, 둘째, 종교적 실행의 문제와 관련된 의례적 차원, 셋째, 종교적 체험을 의미하는 체험적 차원, 넷째, 종교적 지식을 나타내는 지성적 차원, 다섯째, 종교의 영향력을 다루는 결과적 차원이다. 이념적 차원은 신도들이 무엇을 믿는가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믿음의 범위와 강도가 측정의 대상이 된다. 지성적 차원은 종교에 대한 신도의 지식에 관련된 것이다.

고돈(Gordon)과 알포트(Allport)는 종교의식을 내향성과 외향성으로 구분했다(Johnstone, 1975: 52). 외향적 종교는 신도에게 안락과 구원을 준다는 자아보호적 형태의 종교이며, 내향적 종교는 종교적 신념을 완전히 내면화시켜 종교를 위한 삶을 신도에게 요구하는 종교를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종교의식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첫째, 종교에 대한 경험과학적 연구는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둘째, 종교경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과의 직접적인 소통이지 과학적인 검사가 아니라고 종교인들이 주장한다. 셋째, 종교적인 경험이 형식적 조직에 대한 참여에 국한될 수 없다. 넷째, 대부분의 연구들이 전통적인 개신교의 이념만을 측정하고 있다.(홍욱화, 199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상과 같이 종교의식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의 공통점은 적어도 3가지 차원은 모두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신념적 차원과 의례의 준수 및 조직참여는 종교의식의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종교가 복잡한 사회현상인 것만큼이나 개인이 얼마나 종교에 몰입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종교의식을 측정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개신교 초등학생들을 관찰하고 면담하면서 드러나는 지표로 그들의 종교의식을 측정하겠다.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사람들을 불안으로 몰아간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적인 신에게 의지하려는 종교에 대한 강한 갈망을 한다. 사회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사람들의 욕구에 의해 다양한 종교가 생겨나고, 사회 또한 특정 종교만을 요구하지 않고 다양한 종교를 필요로 한다.

종교는 인간에게 구원과 영원을 약속하는 절대신념체계이다. 절대신념체계로서의 종교는 자기의 세계관과 종교적 메시지의 절대성을 확신하고, 이를 전파하려는 당위적 태도를 갖는 것이 사실이다. 다종교 상황은 이러한 당위적 절대신념체계들의 공존 상황을 의미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다종교 사회에서의 타종교에 대한 태도를 유형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2)]

첫째는 배타적 태도이다. 특정 종교의 배타적 진리 주장을 정당화하면서 타종교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 갈등과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만 현대사회에서의 일반적 규범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사회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는 포용주의(포괄주의)적 태도이다. 언표된 의미로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타종교의 교리나 주장, 신념을 자신의 종교에 귀속시키는 태도로서 배타주의적 태도 못지 않은 위험을 지니고 있다. 물론 타종교들을 적극 공격하거나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으로 타종교들에게서 그러한 태도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다.

---

2) 종교다원상황에서 타종교를 대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J. Hick는 배타주의(exclusivism), 포용주의(,inclusivism), 다원주의(pluralism)로 구분, 설명하고 있으며, R. Panikkar는 이 세 구분 외에 평행주의(parallelism)를 추가하고 있고, P. Knitter는 개신교 보수파 모델, 개신교 주류 모델, 가톨릭 모델, 신중심적 모델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는 다원주의적 태도로서 자신이 믿는 종교를 절대적 신념 체계로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타종교들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다른 종교들을 자신의 종교와 같이 하나의 종교로서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무의미한 것으로 보거나 열등하게 볼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다원주의적 태도는 종교 다원사회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입장으로 수용되고 있다. 비록 다원주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인 저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교적 신앙의 자유와 정교의 분리, 혹은 공적인 차원에서의 종교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평한 처우가 규범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한 다원주의적 태도를 견지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다원사회에서는 불가피하게 종교간의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선교와 포교와 같은 종교의 대 사회적 활동에서는 물론 공적인 영역에서의 종교간 형평의 문제, 배타주의적이거나 포용주의적 태도로 인한 갈등 등 종교들 사이의 분쟁과 갈등은 어떤 갈등과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의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어느 종교이든지 타종교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개신교는 특히 배타적인 면이 강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종교에 대해 배타주의, 포괄주의, 다원주의로 살펴볼 수 있다. 배타주의(절대주의)란 전통 기독교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입장이다. 포괄주의란 그리스도의 절대성(배타주의)을 인정하지만, 타종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실재를 인정하는 입장이며 가톨릭교회가 대표적인 포괄주의의 입장에 서 있다. 다원주의는 모든 가치를 상실케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완전한 혹은 철저한 재정의를 필요로 하는 입장을 말한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그리스도나 기독교에서가 아닌 종교적인 우주의 중심에서 '실재(하나님)'를 보기를 원한다. 따라서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한다.[3] 이들은 기독교가 다양한 여러 가지 종교들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따라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의 길이 있고, 진리와 구원의 길이 있다고 보

3) 종교 다원주의 신학자들에는 존 힉(John Hick), 윌프레드 켄트웰 스미스(Wilfred Cantwell Smith), 폴 니터(Paul Knitter), 길희성, 변선환 등이 있다.

는 것이다.

종교 다원주의를 논의해 온 역사는 100년도 되지 않을 만큼 대단히 짧다. 19세기말 동양 세계가 기독교 서구에 소개되면서 세계관을 달리하는 동양 종교들의 현존에 놀라워하며 그로부터 배움을 얻고자 했고, 그것을 기독교와 관계지어 생각해 보려는 노력이 생겨났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일신 사상에 근거하여 절대 종교임을 자처하던 기독교가 자신을 여러 종교들 중의 하나라고 인정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물론 자신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종교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뭇 신앙인들의 공통된 모습이겠지만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상대방의 종교를 인정한다는 것이 서구 제국주의 속에서 자라온 기독교의 입장에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종래 기독교가 지니고 있던 배타주의를 넘어 상대주의, 포괄주의를 거쳐 다원주의의 시각에서 기독교와 타종교의 공존을 말하는 신학적 입장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다.

종교 다원주의의 기본 입장은 모든 종교들이 제시하는 진리에는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적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결코 특정 종교의 기준이 타종교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며, 각 종교들마다의 고유한 종교적 전통을 인정한다.

종교란 어느 때는 절대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공존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의 타종교간의 대화와 평화적 공존을 위해 요구되는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는 한국의 3대 종교 중의 하나인 기독교 가운데서도 유난히 배타적인 성격을 보이는 개신교의 종교적 불관용의 태도를 종교적 관용의 태도로 바꾸어 놓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처럼 다양한 종교를 가진 나라에서는 종교의 다원성을 인정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자신의 종교만이 아닌 다른 길도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점에서 종교다원주의 신학은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주장한다(성염 외, 2000).

종교 간의 갈등은 종교 다원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종교 간의 갈등이 문제가 되는 사회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요즘의 현실을 보면 다양한 종교로 인한 갈등과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세계를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서양의 기독교나 가톨릭 국가들에 비해 다양한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우리 나라에서도 종교 간의 갈등으로 빚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불교계와 가톨릭계가 서로 왕래하면서 비교종교연구를 하고 자주 토론하고 발표하는 것이나 석가탄신일에 성당입구에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는 일, 성탄절에 절에서 성탄트리를 장식하여 축하해주는 일, 종교단체에서 종교간 대화를 모색하는 일 등은 종교다원화 시대의 반영이다.

이렇게 다양한 종교들이 한 사회 안에서 경쟁적 관계를 갖고 서로 다른 규범체계를 가지며 한 사회 안에 공존하는 한국은 전형적인 종교다원 사회이다.

2. 기독교의 종교적 배타성

어떤 종교든지 절대성과 함께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기독교의 절대적이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교리는 배타적인 종교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불교나 천주교 그 외의 다른 종교보다는 개신교에서 배타적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기독교의 배타적 경향을 보이는 원인으로는 첫째 유일신 신앙, 둘째 서양에서 유입된 제국주의 신학적 전통, 셋째 전통적 의례를 수용하는 태도, 넷째 한국교회에 뿌리깊은 보수 신앙전통 등이다

특히 교리적 확신의 정도가 높고 또 교회출석률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보다는 개신교의 목사들에게서 더욱 강한 배타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이원규, 1992).

'하나님 외에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개신교에서는 타종교에서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강한 배타성을 나타낸다. 개신교는 선교사에 의해 유입된 종교이기에 유입 당시부터 한국의 종교문화를 무시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취급했다. 선교사들은 선교활동을 통해 기독교가 한국의 전통종교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수준 높은 세계적 고등종교임을 변증하고 또한 그것이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통해 기독교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데 힘을 쏟았다. 어떠한 경우든 유교적 전통에 깊이 뿌리를 박은 조상숭배사상이나 우리 민족 고유의 무속신앙은 그들의 눈에 부패한 우상숭배거나 미개한 미신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었다. 천주교가 전래될 당시에는 조

상의 제사를 모시는 문제로 심한 박해가 있었다.[4] 지금은 조상에 대한 제사나 제사상에 절하는 문제를 미신 숭배로 보지 않고 우리 나라의 전통과 풍습을 존중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는 전파하는 과정에서 교리적인 확신을 들어 유일신 사상을 강조하였고, 현재까지 그 사상은 이어져 오고 있다. 조상에 대한 제사를 모시지 않고 미신으로 치부하는 행태는 유교문화권인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배타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3.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개신교와 주일학교 교육

가.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개신교

근대화 이후에 우리 나라에 들어온 개신교는 한국 사회에 들어오기 전에 중국 또는 서구에서 이미 제도종교로 자리잡은 것으로, 전래될 때 강력한 정치적 힘과 함께 밀고 들어왔다.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그 종교가 들어오기 이전까지의 한국사회를 암흑세계로 파악하고 자신들의 종교가 한국사회에 전래되면서 비로소 밝은 세상이 열리는 것으로 주장을 해왔다(정진홍, 1986).

선교활동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하여 교육사업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선교사업의 대성공은 기독교 교육에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식의 뿌리를 깊이 심어준 것도 기독교 교육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 정화의 기풍이 세워진 것도 기독교 교육의 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전의 시기에 한국의 개신교교회들이 드러냈던 정치사회적 존재양식과 내적 구조는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해방 직후 한국 개신교교회의 행동방향과 범위를 제약하는 구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4) 조상 제사 문제와 신해 박해 (1791)
천주교가 전래될 당시 조상 제사는 미신이니 금지하라는 외국인 선교사의 가르침으로 이듬해인 신해년(1791) 겨울에 윤지충과 권상연이 순교하고 조선 천주교회의 주요 인물이 박해를 받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신해박해). 윤지충은 조상 제사 폐지와 신주(神主)를 불사름으로써, 권상연은 모친에 대한 제사 불이행과 신주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 그리고 천주교의 반대자들에게 비난과 고발을 받아 치명하게 되며, 이 여파로 평택 현감인 이승훈이 파직되고, 권일신, 원시장 등이 치명하게 되었다. 이 박해의 계기가 된 조상 제사 문제는 이후 1백년 동안 거듭된 박해의 표면적인 이유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천주교 신자들이 4대조까지의 시주를 사당에 모시고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주자 가례(朱子家禮)'의 가르침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적 힘으로 작용했다. 특히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에게 전해준 교파주의(denominationalism)[5] 적이고 근본주의(fundamentalism)[6]적인 개신교는 그 이후 한국개신교 교회의 발전과정에서 엄청난 권위를 획득했고, 한국교회의 지배적인 전통으로 굳어졌다.

해방 후 한국의 종교적 상황은 여러 특성들을 드러내었다.

첫째, 국가는 법적·행정적 수단을 이용하여 특정 종교에 대해 선택적 특혜를 부여하는 반면, 특정 종교에 대해선 선택적인 불이익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군종제도, 형목제도, 공휴일 제정, 각종 종교관계법 등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둘째, 선교전략과 자금 등 선교국 교회로부터 제공되는 지원에 의한 교란효과로 개신교의 대외종속성을 심화시켰다. 그리하여 우리 전통문화를 경시하고 도외시하는 편향된 종교성을 가지게 되었다.

셋째, 종교적 경쟁은 때때로 정치적 갈등과 결합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중도 및 좌익적 세력들이 완전히 제거되면서 각 종교들은 정치적 지지세력으로 변하기도 하였다.

넷째, 해방 후 한국의 종교는 불과 15년 사이에 종교적 민족주의종파들이 재건되거나 내부분화, 다양한 개신교교파들의 새로운 유입, 개신교교파들의 거듭된 자체분열, 한국전쟁 후 다양한 기독교계통의 신종교운동들의 대두, 불교분규 시 급격히 진행된 불교의 내부분화 등을 새롭게 겪으면서 급격하게 다원화되고 중층화되었다.

그리하여 개신교와 천주교 등 기독교분파들은 1940년대와 50년대에 놀랄 만한 교세성장을 향유할 수 있었던 반면, 비기독교적 종교들은 교세가 정체되거나 혹은 감소되었다. 선교국가나 국제종교조직 등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재정지원, 풍부한 구호 및 복지혜택, 사회변동의 방향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선교전략과 교리적 적응능력, 내부의 잠재적 분열을 통제하는 능력, 풍부한 전문인력 및 평신도지식인 등 비신자들에게 특정 종교를 긍적적으로 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5) 교파주의는 종교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단체를 뜻한다. 교파주의란 종교신앙의 공동 근거보다는 교리, 신조, 예배, 의식, 신앙생활의 특이성과 차이점을 강조하는 입장과 원리를 뜻한다.

6) 20세기 초부터 미국의 프로테스탄트 교파 사이에서 자유주의에 대립하여 일어나 보수파의 신앙운동이다. 처음에는 침례파에서 일어났는데 이어서 장로파의 J. G. 메첸에 의해 ①성서무류론(聖書無謬論), ②예수의 처녀강탄(處女降誕), ③육체적 부활, ④예수의 속죄사(贖罪死), ⑤예수의 이적(異跡) 등 5대 강령의 신조가 제창되었으며 1920년 경부터는 정치가인 W. J. 브라이언에 의해 진화론이 부정되면서부터 전 미국교회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여 한 때는 자유와 보수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었으나 그 후 점점 소강상태로 들어갔다.

택하게 만드는 데서 개신교와 천주교는 타종교들보다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이 밖에도 사회적 공신력, 국가권력에 대한 접근능력과 국가의 간섭으로부터의 상대적 자율성의 정도 역시 개신교와 천주교가 타종교들과의 경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해방 후에 근본주의적 교리와 지배이데올로기 간의 친화성은 여전히 두드러졌다. 이 시기에 개신교의 지도자층은 후원도 받으면서 지배구조로 신속하게 편입되어갔고, 사회의 지배집단과의 문화적·구조적 통합을 강화했다.

나. 주일학교 교육

주일학교란 영국에서 시작되어 전세계화된 주일학교(Sunday School)와 미국에서 응용되고 변형된 교회학교(Church School)의 통합 내지는 통합을 시도하는 새로운 학명이다. 주일교회학교라는 교육의 조직은 지난 200년간 개신교회들의 자기보존과 생존을 위한 원초적인 교육의 단위로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일교회학교는 교회의 미래를 가늠하는 교육력의 집약으로 간주되어 어느 교회에서든지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주일학교[7] 학생은 10년, 20년 후 모두가 교회의 신도가 되므로 주일학교 교육은 교회 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최초의 주일학교는 1888년 이화학당에서 시작되었다. 1900년에 주일학교가 보급되어서 1905년부터 조직적인 기독교 교육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30년대 이후 일제의 극심한 압제로 민족의 독립운동적 차원에서의 모든 활동을 둔화시켰으며, 주일학교 운동도 그런 여파를 받아 해산되고 말았다.

해방 이후 주일학교 운동의 활성화가 시도되긴 했으나 각 교파간의 불일치, 신사참배를 둘러싼 신앙의 극한적 대립, 교회 자체의 주일학교 교육에의 이해 부족 등의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조선주일학교 연합회가 한국 기독교 교육 협회로 그 이름을 바꾸고, 주일학교를 교회학교로 사용하면서 기독교교육이란 용어가 쓰여지기 시작했다.

우리 나라 개신교회는 각 종단마다 총회교육부에서 주일학교 교재를 제작하고 있으며 각 교회들은 그 교재를 구입하여 공과공부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교회는 규모가 크든 작든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회에서는 대체로 주일학교 교사들에 대한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

7) 교회에서 공식적인 문서에는 주일교회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주일학교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Ⅲ. A 교회의 주일학교를 통해 본 종교의식

이 교회에서는 초등학생부를 세 부서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서 이름은 유년부(1~2학년), 초등부(3~4학년), 소년부(5~6학년)로 부르고 있다. 그리고 교사들은 주일학교와 교회학교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주일학교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쓴다. 다만 교회의 모든 유인물에는 교회학교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교회학교'라는 말 속에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어른에 이르기까지의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부서를 의미하고 있어서 본 연구자는 교육 1부 중에서도 초등학생을 담당하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의 세 부만을 '주일학교'라고 부르고자 한다.

1. 종교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화된 틀

가. 12제자에서 비롯된 반 구성

학교는 배우기 위해서 학생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들의 배움을 위하여 교사들이 가르치는 곳이며, 이 교육을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학급이 구성되어 있다. 즉, 일반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전국민을 교육하기 위해 반강제성을 띠고 사회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게 교육을 실시한다.

주일학교에도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학생들이 모인다. 그리고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들이 있다. 또한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분반도 있다. 그러나 주일학교는 그 기능이나 교육내용의 성격상 일반적인 학교구조와는 달리 자발적이고 임의적인 교육기관이다.

학교가 학업을 중심으로 한다면 주일학교는 신앙을 중심으로 한다. 학교가 지식화를 향한 교육형태의 조직인데 반하여 주일학교는 교회가 지니고 있는 교육적 사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이다. 이 수행이 교육목회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일학교의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일반 세속 교육의 목표나 목적과 다르므로, 주일학교에서는 신앙을 중심으로 한 학급, 곧 분반의 편성이라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무학년제 학급편성, 시간제 학급편성이 바로 그 같은 방법이다.

제주대학교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러나 A교회 주일학교의 반편성은 어린이들의 신심과 관계없이 학년별로 구분해서 부서로 나누어 부르고 있다. 즉,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초등학교 1~2학년을 유년부로, 3~4학년을 초등부로, 5~6학년을 소년부로 구분하여 부서를 나누고, 이 세 부서를 합하여 아동부라고 부른다.[8)]

세 부서로 나누어진 아동부는 주일학교의 연간계획을 세우는 일부터 각기 부서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예배 및 공과[9)]공부 장소, 행사 등 각기 독립된 부서로 운영되고 있다.

<표 2> 교회학교 조직

부서	부 이름	해당자	비 고
교육 1부	유아부1·2, 유치부1· 2	6세 이하	
	유년부	초등 1·2년	아동부*
	초등부	초등 3·4년	
	소년부	초등 5·6년	
교육 2부	중등부	중학생	
	고등부	고등학생	
교육 3부	청년부1, 2		
	농아부(학생, 장년)		
	사랑부		
	장년부		
	노년부		
	신혼부		
	새 가족부		
	외국인신입부		
평생교육원	교육문화원		
	문화선교센타		
	경로대학		
부속 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 분석대상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8) 가톨릭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초등부라는 하나의 부서에 유치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의 7학급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게 보통이다. 어린이가 많으면 반을 분반하기도 하지만 보통 한 학급 인원이 30~40명이 되므로 학년당 한 학급으로 편성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9) 공과란 주일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교과서)를 말한다.

제주시내의 S가톨릭교회의 신자수는 약 5,000명인데도 주일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는 약 200명 정도이다. A교회의 신도수는 대략 2,700명 정도인데도 주일학교 아동부[10]에 다니는 어린이는 380여명이나 된다.

이는 개신교를 믿는 부모들의 종교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의 차이도 있으나 주일학교에서 주일마다 예배시간에 새로 나온 어린이를 환영하는 순서가 있어서 연중 지속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교회에서 1년에 한 번 한달 동안 '전교의 달' 행사를 실시하여 새로 나온 어린이를 축하해주고 있는 것에 비하여 적극적이고 활발한 선교[11]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린이들의 종교교육에 적극적이고 조직적이며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신교에서의 분반은 종교적인 지식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보다 소그룹별 조직을 통해서 교사가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이끌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일학교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습득시키는 데 교육행위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고 주일학교 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어린이들을 변화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마디로 주일학교 교육의 의미를 '변화하는 사람'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A교회에서는 주일학교의 반 편성을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는 뜻에서 12명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소그룹별 교육방식이 교사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한 반은 가능한 적은 수의 어린이들로 구성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12]는 효과적인 공과공부를 위해서는 소그룹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가능하면 한 반 구성을 5명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하였다.

앞으ᄒᆞ 교육은 어쨋든 소그룹에서 결판이 난다고 봅니다. 개신교는 소그룹,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 이건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게 뭐 영원히

10) 가톨릭교회의 주일학교 초등부와 같음
11) '선교'나 '전교'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느님을 알리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 데려간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12) 교역자란 교회에서 신도들을 교육하고 돌보는 목사나 전도사를 말한다.

있게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계속 세속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그 아무리 탁월한 선교자라도 아이들을 100명씩 갖다 놓고 선교를 통해 회심시키고 신앙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 때는 그런 게 통했는데 지금은 안 통합니다. 확실히 보이는 것도 많고 너무나 자극적인 상황에서 크기 때문에. 그래서 소그룹, 소그룹으로 가구요, 될 수 있으면 반 아이들이 다섯명을 넘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지금 저의 유년부도 85명에서 95명이어서 한 반이 5명 사이를 왔다갔다 합니다.(교역자 06)

<그림 1> 유년부의 공과공부 모습

<그림 2> 초등부의 공과공부 모습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주일예배시간에도 한 반의 어린이 수가 7~8명이어서 교사들은 관리가 용이하다. 예배시간이 엄숙한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돌아다니거나 시끄럽게 큰소리를 내는 어린이는 없다.[13] 그래서 교역자의 설교가 어린이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진다.

아, 우리 교회에서는 부서로 조직되어 있는데 아주 세분화되어 이서예.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여기까지가 6학년까지이고, 중학생부, 고등학생부로 이루어졌주마씬. 또 대학부도 나이별로 1, 2, 3부로 이루어졌고, 청년부도 나이에 따라서 청년1부, 청년2부로 나누어져 이서마씬. 거의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교회는 규모도 그렇고 시설면에서도 제주도에서 가장 큰 교회라예. (교사02)

13) 가톨릭교회의 어린이미사 시간은 산만한 경우가 많다. 어린이는 200명 정도인데 비해 교사는 10명 내외이다. 유치부에서 6학년 어린이까지 모두가 한 곳에서 미사를 드리기 때문에 교사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수업분위기는 가톨릭교회가 덜 소란하다.

한반에 아이들은 열두명 이내로 한다네. 그렇게 하는 건 예수님이 열두제자를 두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아이들 관리하기도 좋으니까(교사03))

실제 A교회의 주일학교 유년부는 어린이 수가 가장 많은 반이 7명이며, 가장 적은 반은 3명으로 한 반의 평균 수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일학교에 나오는 평균 출석률은 1학년이 45명 내외, 2학년이 36명 정도이다.

유년부의 반은 22개 반으로 이루어졌다. 1학년을 1반~10반까지, 2학년을 1반~10반까지 나누고 1학년신입반, 2학년신입반을 따로 구성하고 있다. 유년부는 1학년과 2학년 어린이들을 구분하여 따로 반을 편성하였으며 반이름을 1반, 2반으로 부른다.

초등부는 3, 4학년 어린이를 섞어서 반을 편성하고 있다. 반 이름을 아브라함반, 엘리야반, 다윗반 등 성인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신입반까지 합쳐서 모두 20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초등부에서 어린이 수가 가장 많은 반이 12명이며, 가장 적은 반은 5명으로 한 반의 평균수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출석률은 4명 정도이다.

소년부는 5, 6학년 어린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년부와 마찬가지로 5학년과 6학년을 나누어서 반을 편성하고 있다. 5학년 반이름은 마태반(5-1), 마가반(5-2)등 성인들의 이름과 숫자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6학년 반이름은 사랑(6-1), 기쁨(6-2), 화평(6-3) 등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신입반 이름은 믿음 1반, 믿음 2반으로 부르고 있으며 모두 18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소년부에서 어린이 수가 가장 많은 반이 11명이며, 가장 적은 반은 5명으로 한 반의 평균수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출석률은 6명 정도이다.[14)]

교육에 있어서의 반편성은 아주 중요하다. 한 교사가 담당하는 어린이가 적을수록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그룹별 반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개신교의 교육방법은 가톨릭교회보다 훨씬 높은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14) 가톨릭교회에서는 주로 한 학급 단위로 교육을 하며 그 인원수는 30~40명 정도가 된다. 인원수가 많으면 교사의 전문적인 지도력이 요구되며, 어린이들을 통솔하기가 어렵게 되어 교사의 지식이나 믿음을 어린이들에게 내면화하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1) 교재

교재는 자체적으로 제작하지 않고 교단차원에서 제작하여 소속교회들은 모두 그 교재를 사용한다. 교단 총회교육부에서는 교재를 발간하고 각 교회의 부별(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등) 목사를 모아 교육한다. 그 교육을 받고 온 목사는 주일학교 부서별로 교사 몇 명씩을 모아서 전달교육을 하고 있다. A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으로는 제주도에서 가장 큰 교회여서 제주도의 모든 교회의 대표교사들을 A교회로 모이도록 하여 그 교재를 가지고 1년의 교육과정을 설명한다. 그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다시 자신이 속한 교회나 부서로 돌아가서 모든 교사에게 그 내용을 전달한다. 교육방식이 위계질서가 잡혀있다. 교단총회에서 만들어낸 교재는 일반학교의 국정교과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교단총회는 교육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교재비는 한 권에 삼천원이며 개인이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는 아니며, 형편이 안 되는 아이를 위하여 주일학교예산에 교재비가 책정되어 있어서 그냥 주기도 한다. 교사의 말에 의하면 개인이 구입하는 경우보다 교회에서 주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한다.

주일학교의 교재 구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3> 교재의 구성

교재의 구성	교재의 내용
단원 구성	*단원: 주제별로 단원을 구성하였으며 한 단원은 2~5개 정도의 과로 이루어졌다. *단원 제목: 주어진 단원을 가르침에 있어 중심이 되는 주제이다. *단원 배경: 단원 전체의 간단한 배경 설명과 더불어 1~2학년 어린이들과 각 단원과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 *단원 진행: 단원을 구성하는 각 과의 신학적, 성경적, 교육적 의도가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과 응답의 구조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말씀터 꾸미기	*교육적 내용 이해의 심화 확대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단원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시하거나 일찍 오는 어린이들을 위한 제언을 실었다.

교재의 구성	교재의 내용
과의 구성	*과 제목: 주어진 과를 가르침에 있어 중심이 되는 주제이다. *본문 말씀: 가르쳐야 할 내용의 본문이 되는 말씀이다. *외울 말씀: 본과의 중심 말씀으로 암송하도록 한다. *부르심과 응답: 기존의 학습목표에 해당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셨고 응답했으며 어린이들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교수-학습 진행: 교수-학습 진행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1~4단계별로 요약 정리하여 아이콘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본문 이해와 탐구: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성경연구 자료로 교사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생님 우리들은요…: 교수-학습 진행이나 어린이 지도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교수-학습 진행	*교수-학습 진행: 어린이들의 단계에 맞게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교사가 가르쳐야 할 순서를 잘 알도록 하였으며, 교사가 진행을 그냥 따라하기 쉽게 이야기형식을 구성하였다. *두리번두리번 -성경학습을 위한 접촉 단계 *저벅저벅 - 탐구를 통한 가치 발견 *끄덕끄덕 - 가치수용 및 책임 수행 *돌아볼까요? - 평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교역자 06에 의하면 유년부에서 청년부까지 교재가 일관성 있게 편성되어 있어서 교사들이 공과공부보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는 데 더 중점을 둔다고 한다. 왜냐 하면 교재내용이 일관성이 있게 편성되어 있어서 어느 때든지 그 과정은 거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죠. 이건 유년부 공과니다. 초등학교 1·2학년 애들이 공부하는 거죠. 요건 이제 소년부, 5·6학년선생님거구 이건 애들 거예요. 그니까 전에는 여기에 말씀과 삶이라는 교육목표로 되어 있었어요. 그니까 이제 공과내용은 성경의 내용, 그니까 이건 주제죠! 신앙에 대한 언약의 내

용, 교회에 관한 것이구요, 같은 주제로 유년부에서 소년부로 갈수록 깊이가 깊어져가는 거지요. 이렇게 공과공부는 한 주에 한 과씩 공부합니다. 공과공부는 주일학교에서 쓰는 교과서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교역자 06)

신입반에 들어간 어린이들은 신입반 교재에 의하여 4주 동안 교육을 받는다.

신입반 교재의 내용은 <표 4>와 같으며 이 교재는 이 교회의 교단 총회인 한국장로교출판사에서 출간한 것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거의 모든 교회에서 신입반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표 4> 신입반 교재의 내용

주 \ 부	유 년 부	초 등 부	소 년 부
책 표제	아동부신입반 교재/아동부 저 오늘 처음 나왔어요	구원의 확신을 위한 교재/어린이용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선물을 받았어요	담당교사가 성인용 교재를 재구성하여 사용하고 있음
1	초대합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2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나의 죄를 고백해요	
3	사랑의 말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4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날마다 자라가야 해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유년부 신입반 교재의 '첫 번째 이야기'에는 새로 나온 어린이가 예수님의 초청장을 받아서 천국잔치에 오게 된 것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준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운세를 보거나 굿을 하는 행위, 절에 가서 불공을 하거나 제사지내는 그림이 있고 그런 행위는 모두 미신이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야 하며 주기도문을 외워보도록 한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성경은 가장 특별한 책이며 사랑의 말씀이므로 성경을 잘 읽도록 한다.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을 마음 속에 모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도록 가르치고 있다.

초등부 신입반 교재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므로 생명의 길로 돌아서야 한다고 가르친다. '두 번째 이야기'

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15]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영생(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해야 함을 가르친다.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새로워졌으니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책을 한 줄이라도 읽으며 믿음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2) 교육 내용

교육은 예배와 공과공부, 행사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다. 교역자는 예배 시간에 그날 공부해야 할 교재의 핵심 내용을 설교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설명한다. 80년대 이전의 주일학교 교재는 말씀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지식도 많이 알고 있고, 신앙적인 지식도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삶이 모범적이지 못하다라는 이제 반성이 많이 있고 나서 교재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활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계속적인 반복교육을 통해 의식화하고 내면화되도록 교육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개신교는 주일학교 커리큘런이 거진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 이제 저희 교단 것만 이야기를 하면, 개신교는 제일 중요시여기는 것이 신앙의 확신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 다음에 신앙을 어떻게 경험시키느냐를 중시하지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경험을 하도록 계속 교회 교육프로그램들이 짜여져서 그것이 유치부서부터 이제 청년부까지 일관성있게 가지요. 그래서 특히 이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나 구원의 문제는, 글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판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지 않느냐,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종교적인 공포감이나 이제 그런 것을 주는 게 아니냐,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의 연령이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까지는 상벌에 대해서 명장히 예

15)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원죄' 이야기를 말함.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안된다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며 그 죄의 대가로 인간은 죽게 되었다.

먼한 것 같애요. 어떤 행위를 하면 좋아하고, 어떤 행위를 하면 벌 받는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문제에서 환치시켜서 볼 때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교나 공과공부할 때 천국과 지옥의 문제만큼 아이들에게 크게 감화를 줄 수 있는 강력한 종교적인 언어가 많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그래서 성경의 내용, 말씀의 내용, 성경의 내용이 결국 그 아이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형성한다는 것은 개신교의 공통적인 신앙고백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한꺼번에 잘 가르칠 수 있는 모든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머릿속에 깊숙이 집어넣느냐, 모든 프로그램이 여기에 맞춰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구요, 다만 이제 80년대 넘어오면서 저희 교단에서는 반성이 일어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지식도 많이 알고 있고, 신앙적인 지식도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삶이 모범적이지 못하다라는 이제 반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생활을 어떻게 가시킬거냐, 그래가지고 공과에 그게 들어왔어요. 전에는 계단 공과라고 했거든요. 그니까 1단계 끝나면 2단계, 2단계 끝나면 3단계,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너무 지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과 삶이라는 게 10년, 말씀과 삶 그러니까 그게 원래 목표는 복음적인 삶을 목표로 한 건데, 정의니 뭐 이웃과의 평화니 이런 거였는데 그 삶이 종교적인 삶에 머물더라는 거죠. 아이들이 뭐 밥 먹을 때 기도하느냐 안하냐, 주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 가지고 삶을 평가하드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삶도 복음을 삶으로 끌어들이는 교육목표에 머진했다고 보고 80년대서부터 우선 이제 저희 교단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속한 직장이나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일반사회문제들이 공과내용에 들어옵니다. 저희가 다루는 주일학교 공과에도 보면 왕따 문제나 빈부격차의 문제, 장애인의 문제, 장애인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공과내용 속에 들어와서 보강은 되었지만 역시 핵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궁장히 반복적으로 교육도 하지만 개신교도들 가정이 신앙이 그거니까, 핵심이 그거니까 아이들에게 계속 확인합니다 집에서.(교역자 06)

궁장히 반복됩니다. 그니까 사실상 얼마나 깊이 있고 세련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장년부 공과까지 보면 한 주제 한 주제에 맞춰서 청년부까지 아주 일관성있게

갖고 가지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는 본으로, 계속 교육을 받죠. 본을 보여라, 본을 보여라. 그리고 특수한 수련회나 이런 걸 통해서 경험하게 해요. 그니까 지적으로 배운 것이 경험으로 증명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교역자 06)

주일예배는 각 부별로 각기 다른 교실(예배실)에서 거행된다. 예배는 유년부와 소년부는 A교회의 목사가, 초등부는 어린이전도단 소속의 초빙된 전도사가 담당한다. 예배시간에 목사와 전도사는 설교를 통해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강조한다.

<표 5>는 각 부의 예배순서 및 내용이다. 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특히 다른 점은 유년부의 예배이다. 초등부·소년부와는 달리 유년부에서는 2부, 3부의 순서를 따로 구분해 놓지 않고 있다.

<표 5> 주일학교의 아동부 주일예배 차례

유년부 주일예배	초등부 예배 순서	소년부 주일예배
• 찬양과 경배 • 기도의 노래 • 신앙 고백 • 찬송 • 교독 • 기도 • 말씀 • 찬양 • 말씀선포 • 찬송 • 등반 • 봉헌 • 봉헌기도 및 축도 ◎ 환영 ◎ 공과공부	• 찬양의 시간 • 새 친구 환영 • 신앙고백 • 기도 • 성경 • 찬양 • 말씀 • 기도 • 봉헌(찬송) • 봉헌기도 • 주기도 ▣ 2부 순서 ▣ • 교회생활 안내 • 반별 공과공부	• 경배와 찬양 • 제 1 부 예배 • 경배와 찬양 • 신앙고백 • 교독 • 기도 • 성경봉독 • 찬양 • 말씀 • 기도 • 찬송 • 봉헌 • 봉헌기도 • 축도 제2부 신입환영·등반 축하 및 광고 제3부 공과지도및 반별 활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예배가 끝나면 교사들은 각 부서별로 정해진 교재로 어린이들과 공과공부[16]를 한다. 학습은 주로 설교의 내용을 보충 심화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설교의 내면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행사는 연간 계획에 의해 겨울 성경학교, 친구 초청 잔치, 부활절, 여름 성경학교,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이 있다. 친구초청잔치나 추수감사절 등의 행사지도는 공과공부 시간에 함께 이루어진다.

이 교회의 주일학교 2003년도 유년부 연간 행사 내용은 <표 6>과 같다. 특별히 행사가 많은 건 아니나 특이한 것은 부활절 행사나 추수감사절 행사, 성탄절 행사에는 교사들이 연극을 한다는 것이다. 교사01, 교사03에 의하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가장 큰 행사로 여긴다고 한다. 그리고 정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반별 찬양대회와 성경시험이 있다. 이것도 주일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치러지는 행사가 아니라 유년부에서 하는 행사이다.

우리 유년부의 큰 행사는 겨울 성경학교, 친구 초청 잔치, 부활절 행사, 여름 성경학교, 추수감사절 행사, 성탄절 행사 이 정도이구요, 부활절 행사나 추수감사절 행사, 성탄절 행사에는 교사들이 연극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기적은 아니지만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반별 찬양대회와 성경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조금 다릅니다. 유년부는 찬양대회와 성경시험을 보는데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어요. 가장 큰 행사는 여름 성경학교인데 유년부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 1박 2일로 하고 초등부나 소년부의 경우에는 보통 2박 3일 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자거나 수련원 같은 곳을 이용하기도 해요.(교사01)

주일학교 교육은 공과하고, 여름성경학교·겨울성경학교, 수련회가 주축이구요, 그 다음에 절기 때 절기교육이 있습니다. 전에는 절기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으로 넣어왔어요. 요즘엔 많이 강화시키고 있지요. 기독교문화를 평상시 학습에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서 그런 거죠.(교역자 06)

---

16) 공과공부의 내용은 학습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는 것이며, 학습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주일학교에서 교리시간에 하는 공부를 공과공부라고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6>, <표 7>, <표 8>은 유년부, 초등부와 소년부 연간 행사 계획으로 유년부에 비해 행사 내용이 많다. 가톨릭교회에서 모든 학년이 똑같은 행사계획에 의해 일률적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에 비해 각 부의 활동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사의 자유재량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6> 주일학교 유년부 연간 계획

월	행사 내용	월	행사 내용
1	겨울 성경학교	7	여름 성경학교
3	친구 초청 잔치	11	추수감사절 행사
4	부활절 행사	12	성탄절 행사

<표 7> 주일학교 초등부 연간 계획

월	행사 내용	월	행사 내용
1	신년주일	7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신입생환영예배		여름 성경학교 자체 강습회
	교사 일일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2	어린이 경연대회 참가	8	어린이 경연대회
	초등부 환경정리		
	정기 총회		
3	새 친구 초대 잔치	9	반별 친교회
	교사 친목회		사랑의 편지 쓰기
4	부활절 예배	10	영락운동회 참가
	반별 친목회		추수감사절 백일장
5	어린이 주일	11	추수감사절 예배
	어버이 주일		불우 이웃 방문
	스승의 주일		성탄 예배 계획 수립
6	여름 성경학교 준비위원회 구성	12	성탄 예배
			수료 예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8> 주일학교 소년부 연간 계획

월	행사 내용	월	행사 내용
1	교사조직 및 교육계획 수립	7	교사 강습회
	반 편성 및 어린이 실태 파악		여름 성경학교
	소년부 어린이회 조직		
	교사 일일 수련회		
2	교사 찬양대회 참가	8	어린이 경연대회 지도
	어린이 경연대회 참가(성안교회)		반별 친목회
3	반별 친목회	9	사랑의 편지 쓰기
	반별 찬양 경연대회		교사 수련회
4	새 친구 초대잔치	10	영락 운동회 참가
	부활절 축하 행사		감사절 백일장 대회
5	어린이 주일 예배	11	추수감사 예배
	어버이 주일 예배		불우 이웃 방문 예배
	스승의 주일 행사		
6	상반기 교육활동 평가	12	성탄 장식
	공과 성경 퀴즈대회		수료자 명단, 시상자료
			교육계획서

나. 교실분위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 학습의 효과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교회의 유년부의 교실은 바닥이 온돌로 되어 있으며, 책상은 낮고 이동이 자유로운 것이어서 예배시간에는 옆에 쌓아두었다가 공과공부 시간에는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다. 책상을 22개가 넘게 나란히 놓고 모두 같은 곳에서 공부하는데, 한 반은 4~6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공부방이나 집안 같은 느낌이 든다. 공과공부 시간에 교사들은 작은 책상에 둘러앉아 자연스럽게 어린이들과 아주 가까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리지식이나 신심을 주입할 수 있는 공부방 형식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등부 교실은 예배실을 겸하고 있는 점은 같으나 일반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로 앞에 제단이 있고, 정면을 향하여 장궤틀[17]이 나란히 놓여 있다. 바닥은 온돌이 아닌 콘크리트 바닥에 장궤틀이 가득 차 있어서 예배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공부하거나 복도의 한 켠 또는 제단에까지 올라가서 공과공부를 하고 있다. 어

17) 장궤틀이란 긴 의자이면서 성경책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무릎을 꿇을 수도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린이들은 교사와 함께 반끼리 앉아서 예배를 본다. 예배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공부하거나 조용한 곳을 찾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복도나 빈 방을 찾아서 공부하러 가는 교사도 있다.

소년부 교실은 학교 교실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 예배시간에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책걸상을 앞의 제단을 향해서 줄맞춰서 늘어놓고 있다. 공과공부 시간에는 반별로 책상을 돌려서 사용하기도 한다. 소년부 교실은 교회에서 다른 용도로도 쓰고 있어서 옮기기 편하도록 책상을 놓고 있다.

주일학교의 교리실은 어린이들의 신체적 발달단계에 적절한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어느 부서든지 반은 많고 교실은 하나여서 한꺼번에 공부하다보니 옆 반에 방해가 되는지는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 교사든 어린이든 거의 신경쓰지 않고 아주 소란한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이 할 일을 하고 있고, 교사도 그냥 가르치는 일에 열심이다. 한 쪽에서는 성가연습을 열심히 하기도 한다. 그런 소란함 속에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은 개신교인이 아닌 사람에겐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 주보

일주일에 한 번씩 제작되는 주보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가 내용이나 형식이 각각 조금씩 다르다[18]. 다른 이유는 주보가 각 부별로 제작되기 때문이며, 편집자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 개의 주보에 똑같이 싣고 있는 것은 헌금자의 이름이다. 헌금의 종류도 주일헌금, 특별헌금, 감사헌금이 자세히 공개된다[19]. 어린이들은 모두 주보를 가져서 보게 되며, 집에까지 가져가도록 한다.

A교회의 예산 계획안의 재정을 수입과 지출로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수입은 크게 교회보조와 자체 부서별 헌금으로 충당된다. 교회에서 보조하는 금액은 부서별로 차이를 두지 않고 일정액을 보조한다.[20]

주일학교 재정을 살펴보면 교회에서 보조해주는 예산 외에 주일학교 자체예

18) 가톨릭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주보가 하나이다. 그리고 주보에 헌금을 한 어린이의 이름이 실리지 않는다. 더구나 생일이나 특별한 일로 특별헌금을 하지도 않는다.
19) 주보에는 특별감사 김00, 생일감사 양00, 십일조 이00 등으로 이름이 실려 있다.
20) 2003년의 경우는 500만원이다.

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보를 통하여 헌금한 어린이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알려 어린이들이 헌금을 많이 하도록 하고 있다.

교회 신도들에게 나누어준 예산서에는 주일학교 예산이 유년부나 초등부, 소년부가 각각 5,000,0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주일학교 자체에서 계획된 초등부 예산서에는 9,61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는 교회에서 주일학교에 주는 보조금이 5,000,000원이며 나머지 4,610,000원은 주일학교 초등부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년부나 소년부에서도 교회로부터 똑같이 5,000,000원을 보조금으로 받고 있으며 유년부예산은 자체수입금을 합쳐서 10,142,000원, 소년부 예산은 9,325,000원을 책정해놓고 있다.

주일학교에서는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에서 부족한 재정을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헌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헌금은 주일헌금, 절기헌금 감사헌금 등으로 구성되고, 주일헌금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21]

교회학교 예산은 교회예산의 몇 %를 책정하는지 알아보았다. 모든 신도에게 교회의 1년 수입 및 지출 예산서를 배부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2003년도 예산규모는 1,549,83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0.6% 증가했다. 14개의 부서 중 교육부에 책정된 예산이 149,800,000원으로 9%를 책정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5% 증가한 금액이다. 교육부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교회학교운영비로 73,000,000원인 5%를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17% 증가한 금액이다.

이 교회에서 교육부의 예산을 증액하고, 교회학교운영비를 증액했다는 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주일학교 담당목사는 교회의 희망은 어린이들이므로 주일학교에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표 9>는 이 교회의 1년 예산 중에서 교육부에 편성된 예산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지출내역을 각 부별로 살펴본 것이다.

---

21) 전체 수입금액 중 주일헌금 30%, 감사헌금 7%, 절기헌금 6% 순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표 9> 교회에서의 교육부 예산 편성 자료

(단위 : 천원)

연도 / 부서	2003년		2002년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교육부	149,800	9.6	128,950	9.0
서무부	758,502	48.9	676,754	47.4
예배부	11,300	0.7	11,300	0.8
선교부	111,030	7.1	79,180	5.5
북한부선교부	5,000	0.3	5,000	0.3
전도부	166,000	10.7	181,160	12.6
문화부	38,000	2.4	53,900	3.7
봉사부	50,000	3.2	39,000	2.7
경조부	19,000	1.2	19,000	1.3
친교부	10,000	0.6	7,000	0.4
관리부	124,400	8.0	122,200	8.5
심방부	3,000	0.1	1,500	0.1
음악부	80,800	5.2	82,100	5.7
홍보부	23,000	1.4	21,000	1.5
계	1,549,832	100	1,428,044	10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10> 교육부 예산

(단위 : 천원)

연도 / 구분	2002년	2003년	대비
교육훈련비	4,000	4,000	100
장학금	39,800	39,800	100
교회학교 운영비	57,300	73,000	127
평신도교육	17,850	21,000	124
제직교육 교육*	10,000	12,000	120
계	128,950	149,800	115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

<표 10>에 근거해 살펴보면 교육부의 예산은 지난해에 비하여 상향 조정되었다. 그리고 여러 항목 중에서도 특히 교회학교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그만큼 주일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아진 내역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 교회의 예산서를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 지난해에 비해서 교육부의 예산이 많아지고, 교회학교운영비가 많아진 것은 개신교의 미래설계에 대한 의욕을 엿볼 수 있다.[22]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야말로 교육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관심과 지원은 교회학교의 활발한 교육활동을 기대할 수 있고, 교사들 또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래서 교사들은 더욱 열심히 활동하게 되고, 교회학교 어린이들 또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교사들의 노력으로 교회에 대한 열성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다음은 교육부에 편성된 예산 항목을 살펴봄으로써 교육부 예산 중에서도 교회학교에 쓰이는 예산의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1> 교회학교의 세부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02년	2003년	전년대비
교육부	128,950	149,800	116
교회학교 운영비	57,300	73,000	127
아동부	13,600	19,000	139

<표 11>에서는 교회가 지난해에 비해 교육부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교회학교 운영비를 지난해보다 많이 책정하고, 교회학교 운영비에서 주일학교(아동부)에 배정하는 예산도 많아졌다.

지출은 크게 교사부문과 어린이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교사부문은 교사교육비와 교재구입비로서 전체 지출의 약 9%를 차지하며, 어린이부문은 상품비, 행사·활동비, 성경학교, 행사비, 사무비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주일학교 교육과 관련된 비용은 21%, 행사·활동비는 24%, 성경학교 비용은 19%를 차지한다.

22) 주일학교 어린이를 교육하는 일은 10년, 20년 후의 교회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라. 신입자 환영 및 등반

신입반은 교회에 처음 나온 어린이들로 구성되며, 이 어린이들은 이미 교회에 다니는 친구나 친지의 권유에 의해 교회에 나오게 된다. 주일마다 새로 나온 어린이들은 예배 중에 '새 친구 환영'시간에 선물, 축하노래와 함께 환영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신입반에 들어가게 되는데 신입반에서 4주 동안의 교육을 마치면 5주 째에는 '등반'을 하게 된다. 등반이란 신입반 교육을 마친 어린이가 이미 주일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로 이루어진 반에 들어가서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된 걸 말한다. 유년부는 예전에는 예배가 끝난 후에 새로 나온 어린이를 축하해주는 시간에 함께 축하해주고 반에 편입시켰는데 요즘에는 예배 중간에 '등반' 예식[23]을 한다.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등반예식을 성대하게 거행하고 있다. 초등부와 소년부는 예배가 끝나서 공과공부 하기 전 2부 순서에 신입자 환영과 등반 예식을 한다. 여러 어린이들을 위하여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하는 '생일축하'의식과는 달리 자기 혼자만을 위하여 베풀어주는 신입자 환영이나 등반 같은 통과의례는 그 어린이로 하여금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특별한 마음을 갖게 할 것이다.[24]

새 친구 환영을 마친 어린이들은 교회에 대하여 낯설고, 교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기존의 반에 바로 편입시키지 않고 따로 교육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적응하도록 하고 있다.[2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렇게 이 교회에서는 한 명의 어린이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소중하게 대해준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어린이는 교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교회에 적극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

23) 유년부에서는 목사가 4주간의 신입반교육을 마친 어린이를 소개하고, 손을 얹어 축복기도를 한 다음 선물을 주고 그 어린이에게 알맞은 반에 편입시켜준다.(이 때 그 어린이를 데려온 친구가 있는 반에 넣어주는 경우가 많다.) 소년부에서는 신입반교육을 마친 어린이가 들어갈 반의 선생님도 함께 앞에 나와서 박수를 받고 그 어린이를 데리고 들어간다.

24) 생일축하는 매월 넷째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그 달에 생일인 어린이를 위하여 베풀어지는 행사이다. 이 행사는 부장교사가 주관하는데 생일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이들을 위해 소리내어 기도해주고 다같이 축하노래를 불러주게 한 후 선물을 준다.

25) 새로 교회에 나왔을 때 앞에 나와서 박수를 받고 조그만 선물을 받는 것은 비슷하지만 가톨릭교회에는 '신입반'이 없다. 그래서 '등반예식'도 물론 없다. 이 예식을 지켜보고 있으면 새로 나온 어린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았다. 이에 비하여 가톨릭교회에서는 어느 때에 새로 나오든지 그 어린이에 맞는 학년에 편입시켜서 기존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 나온 어린이를 위하여 따로 교육을 하지는 않는다.

<그림 3> 유년부 신입반교육

<그림 4> 초등부 신입반교육

각 부마다 신입반을 담당하는 교사가 정해져 있다. 신입반 교육을 담당한 교사는 교리 교사 중에서도 특별한 믿음이 있거나, 교회 안에서의 지위가 있는 사람이 맡고 있다.[26] 신입반 교사는 새로 나온 아이가 1명일지라도 일대일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함은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공부가 끝나면 교사는 아이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하여 눈을 감고 통성[27]으로 기도를 한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다음 주에 꼭 다시 나오도록 강조한다.

아, 그건 신입반교육을 4주 동안 받고 나면 등반하게 돼요. 등반이란 건 목사님이 손을 얹어 축복해주고, 선물도 받고 아이들한테 축하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아이에 앞맡은 반에 들어가는 걸 등반이라고 해요. 예전엔 예배 끝난 후에 등반의식을 했는데 요즘은 예배 중에 하고 있어요.(교사 *01*)

2. 종교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가. 담당 교역자

교역자 07은 초등학생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라는 의식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도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나라에 갈 것이며,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믿는

26) 유년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부와 소년부는 이 교회의 권사직분을 가진 교사가 맡고 있다. 교사05에 따르면 “신입반 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
27) 소리내어 하는 기도를 통성기도라고 한다.

어린이들이 새 친구를 데려온 것처럼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28]. 그리고 그는 개신교의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에 대해 말로는 자신의 종교를 강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자신의 종교를 강조하는 강한 종교적 배타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배타적이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종교가 우월하다는 강한 절대성을 지니고 있다.

그에 비해 교역자 06은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개신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절대성이나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은 약하다. 하지만 그런 종교적 배타성은 개신교가 가진 폐단이 아니고 한국사회가 가진 독선과 폐단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라고 평가를 받을만한 삶의 여지들이나 신앙고백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들이 계속 진화하고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해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성, 확신을 가연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느냐는 고민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끝도 없이 확신, 신앙의 확신과 그 다음에 다양성이라는 좁은 사이에 그 끊임없는 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많은 핍박 속에 있었던 종교고 그 다음에 한국문화에서 어쨌든 외래 아닙니까? 그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니까 뭐 가톨릭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리스도교,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뭐 이 땅에 있었던 복교도들이, 복교가정들이 많만하게 그냥 인정해 준 건 아니거든요. 무한한 핍박과 박해를 했단 말이죠. 그것을 극복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강성이랄지 이런 부분이고, 개신교가 독선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사회일반이 가지고 있는 비판은 억울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계층이나 어떤 종교든 독선적이지 않은 건 없

28) 9월 19일 예배시간의 설교 내용이다. "성컨이라는 대통령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피부가 까맣든지 하얗든지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예요. 저렇게 진승처럼 받아선 안돼요. 그래서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 어린이 여러분들은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래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예요. 그렇다면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도, 그냥 저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고 나로 인해서 우리 새 친구가 함께 왔는데 새 친구가 함께 온 것처럼 우리들이 함께 건설해서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나라로 가서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고 정말로 행복한 곳에 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래요."

다고 봅니다. 지금도 불교가정에 기독교인이 들어가면 마치 기독교가정에 불교도가 들어왔을 때와 똑같은 박해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마치 불교도들은 또는 천주교도들은 더 관용이 있고, 이렇게 보는데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일상적으로 보면 그거는 개신교가 가진 폐단이 아니고 한국사회가 가진 독선과 폐단의 문제지 개신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개신교가 가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얘냐면 지금은 옛날같이 무조건 핍박받는 세대는 아니고, 그냥 그 교리적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여유가 없이 배려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반성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공과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수정되고, 현장에 있는 일선 기독교 교육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실행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확신과 불안 사이에 있는 다양성을 끌어들이려면 어느 정도 확실히 그 무엇을 받아야 하고 또 내가 정체성을 확실하게 지키려면 그 집단이나 어떤 교리든지 특히 아이들에게는 설명해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니까 이 교재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쉽게 접근할려고 애를 쓰는데 이건 댓가가 뭐냐면 교훈과 진리를 의식하한다는 거죠. 그니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다양한 여지의 문제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험, 교회가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신앙적인 경험을. 그 경험이라는 것이 또 자기를 이렇게 가두어놓는 거예요. 이건 내가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체험이죠. 내가 겪은 거기 때문에 그 경험은 침해받고 싶어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게 개신교도들이 독파력을 가진 가장 큰 강점이면서 또한 우리 사회에서 양따당하고 독선적인 평가를 받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장점이면서 단점이죠.(교역자 06)

그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 어떤 종교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구요, 그런 확신이 없을 때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이, 신앙을 갖는다는 목적이 이러한 현재적인 삶에 있어서도 목표를 두지만은 또 영원한 것을 위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한계에 놓였을 때에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진정으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전능한 그 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것이 주관이 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 스스로가 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기 것을 취하려는 본능이 있구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우선권을 두고 있다는 본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행복을 함께 누리는 거는 내 스스로는 안된다는 생각이예요.(교역자 07)

뭐, 그렇게 배타적이거나 상종하기 싫다 이런 건 아니구요, 다만 그분들에게도 다가가서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눔 생각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타적인 거 뭐, 예를 들어서 스님과 마주앉지 않는다 이런 자체는 아니구요. 그분은 그분의 나름대로의 선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지만 진리라는 거는 예전에나 지금이나 어느 곳에 가서든지 똑같이 적용돼야 진리인 것처럼 불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을 때에 어느 것이 진리인지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분명히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구요, 어떤 종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얻었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무엇이 계시다면 그것이 그 나름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해되지 않고 선택되지 않는데 그냥 내 게 처고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앉아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전능한 힘이 있다면 그 전능한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또 우리가 가장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런 당신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나눔 속에서 분명히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교역자 0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나.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교회에서는 교사의 나이나 직업, 학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믿음의 정도, 희생과 봉사의 태도를 가지고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 있다. 교사들의 학력은 중졸에서부터 대졸까지 다양하고, 교사의 나이도 19세에서 60세까지 다양하며 직업 또한 대학생, 주부, 회사원, 교사 등 아주 다양하다.[29)]

29) 가톨릭교회에서는 대부분 교사자격증을 가진 일반학교교사를 주일학교 교사로 쓰고 있으며 대학생은 보조교사로 임명한다. 개신교처럼 가정주부를 주일학교 교사로 쓰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그리고 학급당 어린이 수가 30~40명이 되기 때문에 교사가 많은 경우에는 학급당 2명이 담당하게 하여 정교사와 보조교사로 나누지만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적어서 한 교사가 한 반을 맡는 경우가 많다. 두 명의 교사가 한 반을 맡을 경우에 정교사는 학생의 신앙심이나 교리교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수업을 주로 하며 보조교사는 정교사를 도와 수업도우미를 하거나 율동을 맡는다. 개신교에서는 교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시키고자 하는 데 비해서 가톨릭에서는 교사의 교육방법이나 어린이들을 대하는 교사의 태도에 중점을 두고 교사를 뽑는다.

이 교회의 운영규정 제8조의 교회학교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교회학교의 각 부장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면(任免)하며 부감, 담당권사 및 교사는 부장의 추천과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회장이 임면한다'고 되어 있으나 교역자나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보면 이 규정과는 상관 없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교사가 될 수 있다.

면담을 했던 소년부의 한 교사는 30년 동안 주일학교교사를 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더 늙을 때까지 교사직분을 수행하겠으며, 불교를 받아들인 나라는 미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섬기는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며 우리 나라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찰 때 잘 사는 나라가 된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교사는 정규교육을 받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A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의 자격은 믿음과 희생과 봉사에서 비롯되는 것인 만큼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교육보다는 교사 개인의 신앙체험과 개인의 신심이 그대로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우리 개신교는 살아있는 종교지요. 부흥을 멀을 수 있는 건 우리 개신교밖에 없어요. 우리 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건 언더우드목사님과 아펜셀러에 의해 의학선교를 했어요. 불교를 받아들인 나라는 미개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보세요. 그러니 선생님도 교회에 나오세요.(교사 05)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중요하지요. 다른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영원이란 게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잘 살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못 살아요. 인도를 보세요. 우리나라도 모두 하나님을 멀어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교사 05)

본 연구자가 이 교회에 갈 때마다 만나는 교사들은 대부분 아주 친절히 질문에도 응해주었고, 마지막에는 거의 모두가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라는 말을 하였다.[30] 교사들은 타종교에 대한 이해나 종교의 다원성을 이해하기보다는 개신교에

30) 본 연구자는 A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들과 이야기하게 되면 반드시 "저는 가톨릭신자입니다"라고 밝혔음에도 그들은 개의치 않고 친절히 대해주었으며, 거의 모든 교사들이 마지막에는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라고 말하는 걸 잊지 않았다.

대한 강한 절대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종교에 대하여 배타적인 반응을 보인다. 교사들의 이런 종교의식은 그들이 가르치는 교육방법에 의해 어린이들에게 여과 없이 전승되고 있다.

<표 12> 주일학교 교사 현황

조직 / 부서	담당 교역자	부장	부감	교사	성별		계(명)
					남	여	
유년부(1-2)	1(목사)	1	1	31	3	28	34
초등부(3-4)	1(목사)	1	1	29	7	22	32
소년부(5-6)	1(목사)	1	1	30	6	24	33
계	3	3	3	90	16	74	99

<표 12>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는 부장과 부감을 뺀 수가 95명이다.

주일학교 교사는 주위에서 추천을 통해 되기도 하지만 믿음이 돈독한 사람들이 스스로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고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면 거의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자격기준에 따라 적절한 임무를 맡기고 있다.[31] 이렇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좀 더 헌신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도록 교회에서 배려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남교사 수가 여교사에 비해 많이 적으며, 교사의 나이를 살펴보면 10대에서부터 60대까지 아주 다양하며 특히 30-40대가 가장 많다.

주일학교는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주일학교교사는 부장, 부감,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부장은 장로가, 부감은 집사가 맡고 있는데, 이들은 주일학

31) 가톨릭교회에서는 스스로 주일학교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사제나 주일학교교사의 적극적인 권유에 못 이겨 교리교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주일학교 교사는 주로 현직교사이며 대학생은 보조교사로 활동한다. A교회에 비해 신자수가 훨씬 많은 S가톨릭교회의 교리교사는 14명 정도인데 비하여 A교회의 교리교사는 96명이다. 이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 자신이 원하면 교리교사가 될 수 있는 개신교의 시스템과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리교사로 쓰는 가톨릭교회의 시스템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신교인의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와 가톨릭신자의 소극적인 믿음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교를 관리하고 있으며 교사들을 접대하기도 한다.[32]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 위하여 특별한 자격이 있는 건 아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강하고 희생과 봉사를 할 각오가 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자를 받아들인다[33]. A교회의 주일학교교사들은 대부분 이 교회의 집사들로 구성되었으며, 권사와 장로도 주일학교의 일을 맡고 있다. 교사는 개인의 믿음과 재능에 따라 직분을 부여하며 무보수이다. 그렇다고 교사에 대한 특별한 처우가 있는 것도 아니다. 교회의 운영체계가 신도들을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르는 것이다. 교사들은 주일학교에서 담임을 맡기도 하고, 신입반을 전담하기도 하며, 서무나 서기를 맡기도 한다.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보다는 믿음을 얼마만큼 지켜나가느냐에 관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 좋다고 평가되었던 분들도 예를 들어서 운명하실 때나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그것로 끝이잖아요.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폐라는 생각이 들구요.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머리에서만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얼마만큼 녹아있는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알고 있어도 그게 내 삶에 적용이 안되면 말짱 헛거잖아요. 그 녹여내는 작업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요.(교역자 06)

교사들은 자신이 주일학교교사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주일학교교사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히 그 무언가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교사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이유를 초등부를 맡고 있는 교역자 06과 교역자 07은 다음과 같이 전해주었다.

저는 아이들에게 지적인 것을 강조하지는 않구요 선생님들하고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확보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여깁니다. 그니까 아이들이 그 공과의 내용은 계속 반복해서 배우지만 결국 성경의 내용,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싶

32) 가톨릭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 중에서 교장, 교감을 맡게 되며 믿음이 강하다고 하여, 또는 교회의 단체장이라고 하여 주일학교의 구성원이 되지는 않는다.

33) 이 교회에서는 다양한 직업, 학력, 나이의 사람들이 주로 자신이 원해서 교리교사가 되고 있다. 하지만 S가톨릭교회에서는 현직교사가 수십 명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교리교사가 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희생이나 봉사에는 소극적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은 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느냐면 공과나 설교의 지적인 내용이 아니고 관계 속에 있는 선생님의 사랑과 관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된다고 봅니다. 정확한 공과의 전달도 중요하고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관계성이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주고 그런 거죠.(교역자 06)

교사는 지원에 의한 거죠. 그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교사되기는 어렵습니다. 지원자가 많아서. 그리고 안 되는 교회일수록 목회자가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교사를 하나의 봉사라고 보는데 교사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여깁니다. 왜냐면 교회에서 봉사를 통해서 신앙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신앙생활 억마 안된 사람이라도 교사 하겠다고 하면 받아줍니다. 어차피 같이 배워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많이 안아주는 교사가 공과를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좋은 교사이기 때문에(웃음)(교역자 0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자원이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뽑으시죠. 기준은 크게 적용되는 건 아니구요, 세례받을 때 예수를 영접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어떤 면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런 것보다도 아이들 곁에 가서 함께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라면 지식전달이 아니니까, 삶을 나누는 그런 교육이니까 충분히 인명되죠.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인 것, 말씀하신 대로 교리적인 데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지식전달에 불과하구요,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성경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그 말씀에 녹으면서 살아봤더니 내 마음이 이랬고, 이런 평안함이 있더라. 그런 경험적인, 그래서 그냥 이상적으로 그리고 자기도 경험되지 않고 인생이 허로워죽겠는데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말씀을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봤더니 내 안에 이러한 유익이 있더라 하는, 삶을 나누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교역자 07)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교리교사를 해서 4년째 하고 있는데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가끔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 봉사하면 뭔

가 보상인서 같은 것도 있고, 아무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게 기뻐요.(교사 01)

직장 다닐 때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지 못해서 교리교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다가 직장 그만 두고 나서 쭈욱 8년 동안 교리교사를 하고 있어. 나같은 사람도 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고맙지. 우리 교회에서는 학력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희생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교리교사를 할 수 있어. 나는 이 직분을 기쁘게 수행하고 있다네.(이 교사의 학력은 중졸인)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계속할거야.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서만 안전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지.(교사 03)

교리교사가 되고 싶으면 우선 희망을 해야 되겠지만, 하겠다고 희망하는 사람을 자르진 않아예! 우선 무보수이기 때문에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고, 이제 들어오시면 그 자격기준에 따라서 그 담당을 정합니다.(교사 0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저는 교리교사 한 지가 한 35년쯤 됩니다. 주일마다 8시 30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리준비도 해요. 주일이 되기 전에 지난 주에 결석한 어린이한테 전화도 하지요. 난 체헌을 했어요. 딸만 여섯인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모든 일이 잘 되었어요. 난 70세까지 교사의 직분을 행할 겁니다.(교사 05)

교사에게 부족한 부분은 담당 교역자들이 보충해준다. 다음 주에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을 교재에서 간추리거나 학습지도안을 만들어서 교사회합 시간에 교사들에게 미리 교육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특별히 어떤 자격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으며 교사 개인의 자격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지식 전달기능보다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특별히 어떤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걱정 없어요. 이제 그 공과라고 해

서 책자가 나와있어요. 교사들끼리 하고 학생들 것이 나와 있는데 예배 끝나고 교사 회의를 할 때 제가 다시 설명서를 해줘요. 그걸 가지고 일주일동안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오셔서 가르치죠. 공과공부 후에 교사들은 다시 모여서 회의도 하구요.(교역자 07)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런 것보다도 아이들 곁에 가서 함께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라면 지식전달이 아니니까, 삶을 나누는 그런 교육이니까 충분히 인명되죠.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인 것, 말씀하신 대로 교리적인 데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지식전달에 불과하구요,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성경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그 말씀에 녹으면서 살아봤더니 내 마음이 이랬고, 이런 평안함이 있더라. 그런 경험적인, 그래서 그냥 이상적으로 그리고 자기도 경험되지 않고 인생이 허탈하게 죽겠는데,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말씀을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봤더니 내 안에 이러한 유익이 있더라 하는, 삶을 나누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교역자 0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공과공부 끝난 후에 교사모임을 하는데 우리 초등부 담당 전도사님이 다음주에 가르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우리 교사들은 그걸 다음주에 가르치고 하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데는 별로 어려운 건 없어.(교사 03)

1명의 담임은 12명 이내의 어린이를 맡아서 교육한다[34]. 어린이들의 신앙심을 키워주기 위해 교사들은 토요일에 전화방문을 통해 다음날 주일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하며 주일날 놀이동산에 데려가거나 교사의 집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음식을 만들어 먹이기도 한다[35].

---

34) 가톨릭교회에서는 주일학교가 일반학교와 같은 편제로 되어 있어서 한 반을 30~40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한 교사가 모두 맡는다. 하나의 교실에서는 오직 한 반만 수업을 하며, 미사를 보는 방(성당)과 공부를 하는 교실은 구별된다. 이는 예배와 공부를 같은 방에서 하고 있으며, 한 교실에서 20~22반이 나뉘어져서 공부하는 개신교의 모습과 아주 다르다.

35) 천주교회에서는 거의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한다. 교사 한 명당 너무 많은 어린이를 맡고 있기도 하거니와 교사들의 적극성이 부족하여 어린이들 스스로 알아서 나오도록 하는 경향이 강하다.

<표 1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일학교 아동부 교사의 수가 많아서 어린이들을 소규모그룹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인 공과공부를 할 수 있다.

교사들은 오전 8시 30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업준비를 한다. 공부를 마치는 시간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가 각각 다르다. 주일학교의 운영계획에서부터 예배나 공과공부까지 거의 모든 활동이 부서별로 이루어진다.

개신교의 주일학교 교사들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댓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적으로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 공과공부를 마치고 담임교사가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맛있는 것을 사주거나 어디에 데리고 가서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심을 돈독히 쌓아갈 수 있게 될 것이며, 교회에서 만난 많은 아이들은 자신들도 자라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겠다고 말한다.

직장 다닐 땐 주일예배도 제대로 참석 못해시네. 구역예배는 갈 수 있으면 꼭 나가고 했지만. 직장 그만둔 다음날부터 성가대를 하기 시작했고, 한 3개월 후에 교리교사도 하게 돼어시네. 사람들이 나오라고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그리고 구역장, 여전도회 회계, 성가대도 하고 있져게. 나같이 노래도 못하는 음치가 그저 빈자리 채우는 거지만.(웃음) 주일날은 아침 여덟시 반에 교회에 나와서 교사모임 가지고, 초등부 공과공부 가르치고 나서 교사모임 끝나면 11시예배 드리고, 지하식당에 가서 점심 좀 해서 성가연습 헌다게. 오후 3시에 오후예배 끝나서 집에 가면 4시 반 정도 되어가. 집에선 그냥 전신 차려둥 오면 자기대로 찾아 먹고, 뭐랜 볶평도 안헌다게. 그러니까 집엔 잘 못허여.(교사 03)

교회에 다니면서 주일날 새벽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오지만 마음은 훨씬 편하고 좋아요. 집에 돌아가는 시간은 보통 오후 4시정도 되지요. 주일은 오직 하나님께 봉헌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좋아요. 그리고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게 그 기도의 힘이 정말 느껴져요. 그래서 더 열심히 교사도 하게 되었어요.(교사 04)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에 대한 처우는 특별히 좋은 것 같지 않다. 다만 회합 같은 걸 할 때의 비용은 부장과 부감인 집사나 권사들에 의해서 충당하고 교사들 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체경비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인터뷰과정에서는 교회에서 교사에 대한 처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대답했는데 예산서 내역에는 교사회의비(90,000원×2회)와 교사교육비(500,000원)가 책정되어 있다. 교회가 주일학교교사에 대하여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부모후원회나 자모회가 공식적으로 있지는 않다. 그러나 뜻 있는 학부모가 어린이들의 간식을 후원해주기도 하고 교사들을 접대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A교회에 몇 차례 다니는 동안에도 학부모들이 가끔 교사에게 돈을 주며 간식을 사서 아이들과 함께 먹으라고 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는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며, 주일학교에 대해 관심이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초등학생의 종교의식

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가요

교회에서 만난 어린이들은 교회에 오는 게 즐겁고 좋다고 한다. 교회에 오면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 수도 있고, 오락도 할 수 있으며 맛있는 것을 먹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싶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대답하였다. 교회에서는 어린이들이 떠들거나 뛰어다니거나 하는 것에는 개의치 않는다. 그저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관찰과 사례조사를 통해 본 개신교 초등학생들의 종교의식은 배타성이 아주 강하다. J초등학교 6학년의 한 어린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악마”라고 말한다. 그리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학교공부 같은 건 기도한다고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어린이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엄마와 함께 성경공부를 하고 새벽기도에도 나간다. 하지만 학교공부는 별 관심이 없다. 이 어린이의 아버지는 교회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가족끼리 불화가 심하다. 이 어린이는 아버지가 교회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한다.

J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중에서 개신교에 다니는 14명을 8개월 동안 관찰한 결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간다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 또한 부모가 함께 교회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간다’는 얘기를 아빠나 엄마, 또는 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회선생님이나 목사님에게서 들었다고 한다. 교역자 07은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타종교에 대해 가지는 배타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한 삶의 여지들이나 신앙고백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들이 계속 진화하고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해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성, 확신을 과연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느냐는 고민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끝도 없이 확신, 신앙의 확신과 그 다음에 다양성이라는 볶은 사이에 그 끊임없는 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많은 핍박 속에 있었던 종교고 그 다음에 한국문화에서 어쨌든 박해 아닙니까? 그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니까 뭐 가톨릭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리스도교,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뭐 이 땅에 있었던 불교도들이, 불교가정들이 많만하게 그냥 인정해 준 건 아니거든요. 무한한 핍박과 박해를 했단 말이죠. 그것을 극복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강성이랄지 이런 부분이고, 개신교가 독선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사회일반이 가지고 있는 비판은 억울한 면이 있다. 왜냐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계층이나 어떤 종교든 독선적이지 않은 건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불교가정에 기독교교인이 들어가면 마치 기독교가정에 불교도가 들어왔을 때와 똑같은 박해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마치 불교도들은 또는 천주교도들은 더 관용이 있고, 이렇게 보는데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인상적으로 보면 그거는 개신교가 가진 폐단이 아니고 한국사회가 가진 독선과 폐단의 문제지 개신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개신교가 가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왜냐면 지금은 옛날같이 무조건 핍박받는 세대는 아니고, 그냥 그 교리적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여유가 없이 배려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 반성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공과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수정되고, 현장에 있는 일선 기독교 교육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실행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확신과 볶은 사이에 있는 다양성을 끌어들이려면 어느 정도 확실히 그 무엇을 받아야 하고 또 내가 정체성을 확실하게 지키려면 그 집단이나 어떤 교리든지 특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히 아이들에게는 설명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니까 이 교재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쉽게 접근할려고 애를 쓰는데 이건 댓가가 뭐냐면 교훈과 진리를 의식하한다는 거죠. 그니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다양한 여지의 문제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험, 교회가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신앙적인 경험을. 그 경험이라는 것이 또 자기를 이렇게 가두어놓는, 이건 내가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체험이죠. 내가 겪은 거기 때문에 그 경험은 침해받고 싶어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게 개신교도들이 독파력을 가진 가장 큰 강점이면서 또한 우리 사회에서 왕따당하고 독선적인 평가를 받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장점이면서 단점이죠. (교역자 07)

개신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신앙의 확신을 시키고 그것을 내면화하기 위해 반복학습과 어린이 발달단계에 알맞은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음을 교역자 07은 말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개신교는 제일 중요시여기는 것이 신앙의 확신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 다음에 신앙을 어떻게 경험시키느냐를 중시하지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경험을 하도록 계속 교회 교육프로그램들이 짜여져서 그것이 유치부서부터 이제 청년부까지 일관성있게 가지요. 그래서 특히 이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나 구원의 문제는, 글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판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지 않느냐,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종교적인 공포감이나 이제 그런 것을 주는 게 아니냐,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의 연령이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까지는 상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애요. 어떤 행위를 하면 좋아하고, 어떤 행위를 하면 벌 받는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문제에서 한치시켜서 볼 때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교나 공과공부할 때 천국과 지옥의 문제만큼 아이들에게 크게 감화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종교적인 언어가 많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그래서 성경의 내용, 말씀의 내용, 성경의 내용이 결국 그 아이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형성한다는 것은 개신교의 공통적인 신앙고백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한꺼번에 잘 가르

칠 수 있는 모든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머릿속에 깊숙이 집어넣느냐, 모든 프로그램이 여기에 맞춰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구요.(교역자 06)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식이 내면화되는 건 어디서 기인한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많복됩니다. 그니까 사실상 얼마나 깊이 있고 세련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장년부 공과까지 보면 한 주제 한 주제에 맞춰서 청년부까지 아주 일관성있게 갖고 가지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맞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는 본으로, 계속 교육을 받죠. 본을 보여라, 본을 보여라. 그리고 특수한 수련회나 이런 걸 통해서 경험하게 해요. 그니까 지적으로 배운 것이 경험으로 증명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린이 11은 아직 1학년이어서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성경 내용도 조금은 알고 있으며, 벌써 자신의 종교에 대해 절대성에 가까운 인식을 하고 있다. 이 어린이의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두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 할아버지는 장로, 할머니는 권사이며 부모는 집사이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간다는 걸 믿니? 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예수님은 착하니까 예수님 믿어야 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일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도요, 어떤 부자가 가난한 거지한테 빵 한조각만 주었다면 하늘나라에 갔을 텐데요~ 안 주니까 지옥갔어요.(어린이 11)

어린이 09는 다른 아이들한테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가!”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다. 유심히 8개월 정도 관찰한 결과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에 차 있고, 어디서든지 다른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갈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 같은 반 친구 3명을 교회에 데리고 갔으며 계속 데려가고 싶다고 한다. 교회 가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며 토요일에는 “내일 교회 갈 거”라는 얘길 자주 한다. 월요일마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자랑스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게 얘기한다. “우리반 친구 00을 데리고 갔다”, “김00 교생선생님도 우리 교회에 다닌다”, “우리집에서 교회사람들이 모여서 ~했다” 등 끝없이 얘기한다. 이 어린이는 교회와 가정에서 종교교육을 받고 있어서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해 강한 절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교회 선생님이 꼭 하나님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아빠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아서 지옥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뉘우치면 천국에 갈 수 있대요. 엄마아빠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윗이 용기가 있어 갖고 어떤 무서운 사람을 이겨냈다고. (어린이 09)

어린이 10은 A교회의 주일학교 유년부에서 성가대를 하고 있다. 교회에 가는 것을 즐거워한다. 부모는 교회에 잘 다니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은 교회에 꼭 보낸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목사님이 얘기해 줬어요. (어린이 1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나. 뉘우치면 용서받고 하나님나라에 가요

어린이들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어릴 때 형성된 의식이나 습관은 쉽게 잊히지 않고 내면화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어린이들 입에서 그래도 뉘우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한다. 교회에서 만나는 어린이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서슴없이 말하였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하게 살면 하나님나라에 갈 수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았지만 그 어린이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지만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고 하나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아직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기엔 어리지만 꾸준히 반복되는 교육으로 어린이들은 자신의 종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다. 예수님처럼 살겠어요

주일학교에서 또는 부모가 신앙심이 깊은 어린이들에게서는 예수님처럼 살겠다

든가, 친구를 교회에 데려가고 싶다고 한다. 이 교회에서 만난 어린이들에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거나 싫을 때는 없는지 물어보았지만 모두 교회에 나오는 게 좋다고 한다. 교회에 나오면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과 목사님을 만나서 좋다고 한다.

어린이 07은 길을 가다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용돈을 모두 준 일이 있다. 그리고 어린이 09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에 차 있고, 어디서든지 다른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갈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 같은 반 친구 3명을 교회에 데리고 갔으며 계속 데려가고 싶다고 한다. 교회 가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며 토요일에는 "내일 교회 갈 거"라는 얘길 자주 한다. 그 어린이는 말을 듣지 않는 친구들도 기도해주면 말을 잘 듣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 된다고 한다. 예수님도 나쁜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으며 교회에 가면 착한 사람이 된다고 믿고 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기보다는 의식하고 있다.

이 어린이는 다른 아이들한테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너는 어떤 때에 기도를 하니?

제가 속상할 때 그리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구요, 기쁠 때도 해요. 속상할 때는 슬프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구요, 기쁠 때는 감사기도를 해요. 저는 말 안듣는 친구들도 모두 교회에 데려가고 싶어요. 제가 기도해서 말 잘 듣게 해주면 돼요.(어린이 09)

Ⅳ. 결 론

개신교를 믿는 초등학생의 종교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제주시내 A교회의 주일학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린이들의 종교의식을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형화된 틀과 사람들이다.

종교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화된 틀에는 12제자에서 비롯된 반 구성, 교실분위기, 주보, 신입자 환영 및 등반이다. 종교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담당교역자와 주일학교 교사이다.

어린이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학습형태를 소그룹별로 조직하여 공과공부를 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반복학습을 하고 있었다. 이 방법이야말로 어린이들의 종교의식을 내면화하는데 가장 적절하고 중요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종교의식의 두 측면-다원성과 절대성- 중 절대성의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일학교의 부서에서 반을 조직하는 것도 한 교사가 10명 이내의 어린이를 맡도록 하고 있으며, 유년부에서는 한 반을 5명 내외로 하고 있다. 즉, 소그룹별 교육의 장점을 살려 어린이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종교의식을 내면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반복학습을 한다. 소그룹별 교육은 교사가 어린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지고 의도대로 교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공과공부를 하는 교실의 모습은 산만한 편이다. 각 부별로 예배시간이 끝나면 공과공부를 하게 되는데 한 교실에서 18반~22반으로 구성된 반이 공부를 하게 되니 자연히 소란스럽게 된다. 하지만 각 반의 담당교사와 어린이들은 옆 반에서 일어나는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 오직 자신들의 일에만 열심이다. 가끔씩 다른 곳을 기웃거리고 딴짓하는 어린이가 있어도 교사들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꾸준히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사들과 교역자들은 어린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학 전 어린이들을 위한 부서를 유아부, 유치1부, 유치2부로 나누어서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있으며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청년부 순서로 계속적인 공과공부를 하게 된다. 이처럼 공과공부는 언제든지 반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해마다 교육부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주일학교 운영 방식도 조직적이며 목사의 관심도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작되는 주보를 통해서 헌금자의 이름을 공개한다. 헌금의 종류도 주일헌금, 특별헌금, 감사헌금이 자세히 공개되어 어린이나 부모들에게 헌금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주일학교 재정이 교회에서 보조해주는 예산 외에 주일학교 자체예산을 합하여 주일학교 연간운영비가 마련되는 것이다.

신입자 환영 및 등반의식은 주일학교에 처음 나온 어린이들에게 교회에 대한 친근감을 주고 선택받았다는 특별한 마음을 갖게 한다. 이런 통과의례는 어린이들이 교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오게 한다.

종교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담당 교역자와 주일학교 교사들이다. 각 부마다 담당교역자가 따로 있어서 예배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종교교육을 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종교의식을 내면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반복학습을 한다. 유일신에 대한 절대적인 설교를 하고, 어린이들에게 종교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간다, 천국에 갈 수 없다”며 지옥과 천당이라는 이분법적인 교육방법을 사용한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만큼 아이들에게 크게 감화를 줄 수 있는 강렬한 종교적인 언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담당 교역자는 공과공부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어린이들이 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특히 배려하고 있다. 공과를 잘 가르치는 일보다 어린이들과 잘 놀아주고 안아주는 교사가 되도록 한다. 교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다.

교사들은 자신의 종교가 절대적이라고 믿으며 가르치고 있다. 주일학교 교사들을 면담하고, 예배와 공과공부하는 모습을 직접 참관하고 면담하면서 교사들의 확신에 찬 믿음과 강한 자기 만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들의 확신 또한 교회에서의 반복적인 교육에 의한 것이다.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습관적으로 교사를 모방하려는 특징이 있다. 이런 교육 환경은 어린이들에게 타종교를 이해하고 인정하게 하기보다는 무조건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한 절대적인 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본 연구자가 조사한 A교회는 절대성을 강조하는 교육 메카니즘이 팽배해 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타종교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은 고학력일수록 종교적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학력이 낮고 나이가 많을수록 절대성을 주장한다. 고학력자인 교사는 개인적으로는 타종교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드러내놓고 인정하는 것은 꺼린다. 교회에 출석률이 좋을수록, 교리적 확신이 높을수록 절대성에 대한 경향이 강하다.

초등학생의 종교의식이 일반인들의 종교의식을 보여준다. 이런 교육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종교적인 배타성과 상호불인정이 예상된다. 그리고 종교교육을 강화할수록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을 많이 지니게 되어 종교로 인한 사회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일부 종교간의 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탄절에 절에서 성탄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절 입구에 축하현수막을 설치하는가 하면 성당에서는 석가탄신일에 축하메시지를 보내고 성당입구에 축하현수막을 걸어 서로 축하해주는 일을 가끔 볼 수 있다. 종교인 연합회 모임 같은 것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개신교 내에서는 이단, 사이비 논쟁, 토착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등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조상의 제사를 모시지 않는 일, 같은 신도끼리의 혼인을 강요하는 일, 상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신도들의 가게를 주보에 공개하여 이용하도록 소개하는 일, 타종교를 인정하는 교역자들을 이단으로 몰아 배척하는 일, 세력이 약한 새로운 종교들을 이단시하는 일, 토착종교들을 무조건 미신으로 단정짓는 일들은 개신교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배타적인 행위이다.

본 연구자가 면접한 교역자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타종교를 인정한다고 하였지만 공개적으로 그런 의견을 내놓을 수는 없다고 하였다. 교단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내놓았다가는 파문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A교회의 신문 사설에는 '제사'문제를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었다. 우리 고유의 '효사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제사를 무조건 우상숭배로 여기는 태도는 고려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모든 종교들은 어린이들에게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적합한 종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 사회가 더 이상의 갈등과 배척이 아닌 서로 인정해주고 공존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타종교에 대해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교육해야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종교의 보편적인 목적이 ‘인류애’나 ‘인간애’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현 시점에서 어린이들의 종교교육 실태를 드러내어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개신교의 종교적 배타성을 종교 본연의 목표인 ‘인류애’를 가진 종교인으로 키워낼 수가 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종교문제들은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여 생기는 현상이다. 서로 자신이 믿는 종교만을 내세우면서(종교의 절대성) 다른 종교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는 많은 갈등과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종교는 구원의 대상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다양한 종교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종교를 믿는 어린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로 화합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타종교를 인정하는 종교교육을 해야 한다. 종교교육을 교회나 가정에만 맡겨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제도권교육으로 이 문제를 끌어들여서 학교에서 올바른 종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종교만이 아니라 어느 종교든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가르친다면 훨씬 더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다른 종교에 대한 폭넓은 수용의 태도를 기르게 될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참고 문헌

강정훈, 2003,『주일학교, 새롭게 디자인하라 』, 아가페출판사.

강인철, 1996,『한국기독교회와 국가・시민사회: 1945-196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김동환, 2003,『다니엘 학습법』, 규장문화사.

김소진, 2001,『깜짝시간이 있는 교회학교 이야기』, 모퉁이돌.

김항원 외, 2000, 『전환기 제주의 의식과 제주정신』, 제주대학교출판부.

김희자, 2003,『정보화시대의 기독교 어린이 교육』, 대한예수교장로회.

노길명, 1996,『한국신흥종교연구』, 경세원.

노치준・강인철, 1997, 『해방 후 한국 종교의 특성과 변화』, 문학과 지성사.

에밀 뒤르케임, 1992,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노치준・민혜숙 역, 민영사.

맹용길 외, 1993,『한국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신망애출판사.

박영신, 2000, 『사회학 이론과 현실 인식 』, 민영사.

변선환, 1992,『종교다원주의와 한국적 신학 』, 한국신학연구소.

성 염 외, 2001,『종교다원주의 시대의 기독교와 종교적 관용』, 민지사.

윤이흠 외, 1986, 『전환기의 한국 종교』, 집문당.

이종석, 2000, 『다종교 사회에서의 종교간 화합 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은준관・황문찬, 1995,『주일교회학교란』, 종로서적출판주식회사.

이원규, 1990,『종교다원주의와 신학적 과제: 종교다원주의 상황과 한국교회』, 대한기독교서회.

_____, 1992,『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성서연구사.

임세빈, 2000,『주일학교 운영백과』, 도서출판 온누리.

정춘석, 1987,『어린이 설교법』,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

조성윤 외, 2003,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조흥윤, 2000,『한국의 샤머니즘』, 서울대학교출판부.

한경직 외, 1991,『한국교회를 말한다』, 신망애출판사.

한국교회문제연구소, 1994,『2000년대를 향한 한국교회의 전망과 과제』, 한국로고스연구원.

한국사회학회, 1994 가을호,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완상, 1994,『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대한기독출판사.

한완상, 한균자, 2000, 『인간과 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강인철, 1994, “한국 개신교교회의 정치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 : 1945-1960”,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준수, “주일학교 교육의 당면 문제 및 활성화 대책”

김영일, 2001, “젊은 기독교인의 대형교회 이동”, 연세대학교 대학원.

김청봉, 2000, “건강한 교회학교를 위한 7가지 전략”, 신학과 현장 제10집.

김희숙, 1989, “유아의 기독교적 종교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계명대학교교육대학원.

박수경, 1995, “기독교학교의 종교교육 활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성영호, 1994, “가정교육에 대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비교분석”, 조선대학교교육대학원.

안미연, 2001, “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실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은준관, 1984, “주일교회학교 교육에 관한 연구”

이용신, “주일학교의 커리큐럼과 당면과제”

이재영, 1998, “종교의식의 종교교육적 구조와 과정”

이은란, 1984, “유아의 종교교육 실태와 그 개선 방안 모색”

임기재, 1992, “한국교회학교 음악교육의 어린이 발달에 관한 연구”

井上 順孝, 1999, “한일학생 종교의식 조사보고”

_____ , 2000, “한일학생 종교의식 조사보고”

정순일・한내창, 1995, “종교성과 사회윤리관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 31집(가을호, 1997).

정현숙, 1992, “종교교육의 연구영역”,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조성윤, 1992,『조선후기 서울 주민의 신분 구조와 그 변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홍욱화, 1993, “한국 여성의 아노미와 종교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28집(가을호, 1994)

황옥자, 1999, “유아기의 종교교육에 관한 교사의 종교인식 및 전망”, 종교교육학 연구 제9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현대종교, 2003,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0월, 11월.
_____ , 2002, 1월, 4월, 7월, 8월, 9월, 10월.
_____ , 2001, 4월, 5월, 6월, 7월, 9월, 12월.
_____ , 1999, 4월.
_____ , 1998, 5월.

<자료>

A교회, 주보.
_____ , 어린이 주보.
_____ , 2003년 교회요람.
_____ , 2003년 교회학교 세부계획서.(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_____ , 유년부 아동용 교재.
_____ , 유년부 교사용 교재.
_____ , 초등부 아동용 교재.
_____ , 초등부 교사용 교재.
_____ , 소년부 아동용 교재.
_____ , 소년부 교사용 교재.
_____ , 유년부 신입반 교재.
_____ , 초등부 신입반 교재.
_____ , 소년부 신입반 교재.
www. edupck.net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부 록

<녹취록>

교사 01(정××)

선생님은 언제부터 교회에 다녔고, 주일학교교사는 몇 년이나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힘들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아기때부터 죽곧 교회에 다녔어요. 가족이 모두 교회에 다니고 있구요. 고향이 남원인데 그 교회의 신도수는 한 400명 정도 될 겁니다. 우리 교가 동네는 더 시골인데 아주 작은 교회거든요. 거기는 아줌마선생님 둘이서 찬양, 예배, 공과공부까지 모두 다 하기도 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교사교사를 해서 4년째 하고 있는데 힘들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가끔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 봉사하면 뭔가 보상심리 같은 것도 있고, 아무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게 기뻐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우리 유년부의 큰 행사는 겨울 성경학교, 친구 초청 잔치, 부활절 행사, 여름 성경학교, 추수감사절 행사, 성탄절 행사 이 정도이구요, 부활절 행사나 추수감사절 행사, 성탄절 행사에는 교사들이 연극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기적은 아니지만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발표 찬양대회와 성경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조금 다릅니다. 유년부는 찬양대회와 성경시험을 보는데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어요. 가장 큰 행사는 여름 성경학교인데 유년부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 1박 2일로 하고 초등부나 소년부의 경우에는 보통 2박 3일 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자거나 수련원 같은 곳을 이용하기도 해요.

이 교회의 경우 아동부(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교재는 어떻게 선정하고 구입하나요?

교재는 교단총회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재대금을 아이들한테 받기는 하는데 이 삼천원 하거든요. 강제로 받는 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나머지 못 받는 아이에겐 교회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예산이 있으니까. 부서별로 예산에 이렇게 교재대가 책정되어 있어요.(주일학교 교육계획서의 예산에 유년부는 1,500,000원, 초등부는 1,020,000원 소년부는 1,350,000원으로 올해의 교재대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교육목표도 교단총회에서 정해요. 거의 모토 같은 게 정해져 있어요. 이런 거(유년부 주보를 보면서)는 이제 거의 유년부 자체적으로 정하긴 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저기, 여기는 이제 '하나님 능력으로 꿈을 키우는 초등부' 이런 표어는 자체적으로 정하는 건데 그 큰 교육모토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해가 아마 '하나님 나라와 가정'인가 일 거예요. 전체 교육모토, 그 올 한해 이렇게 이끌어나가자 해서. 그 여름성경학교 때 모토가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가정' 그게 모토여가지고. 그니까 한 달 전이나 그렇게 있는데. 그니까 6월 말이나 7월 초 쯤 해가지고 교사강습회를 따로 해요. 그건 이제 전국에서 이케 내려와 가지고. 그 교단총회 쪽에서 내려와서 강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강습시킬 때 그 교회 사람들만 강습은 누가 시키나요?

제주도의 장로회소속 교회의 모든 교사들을 한 자리에 불러서 해요. 우리 ㅅ교회가 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해요. 아동부 연합회라는 게 있거든요 제주에. 아마 어디 가든지 아동부 연합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합치면 이제 아동부인데, 아동부연합회라고 있어서 인제 거기에서 강사선생님도 모셔오고 해가지고, 그 강사분들은 이제 뭐 여름성경학교 할 때마다 노래가 따로 있거든요. 노래에 대한 율동 이런 거랑, 이제 공과공부를 하는데 보통 한 세 과정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에 대한 이제 지도 방법, 그 여름성경학교 교재가 또 대개 딱 붙이고 오리고 딱 활동적인 거거든요. 주로 활동 위주로 하는 거라서, 할려면 지도가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그냥 일반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거를 강습회 기간 동안에 받아서 하거든요. 그니까 나와서 이제 하지요.

그럼 교육받을 때는 전 교사가 참가하나요?

아뇨. 교육 받을 때는 전 교사가 참석해도 되고 몇 명만 참석해서, 자체강습회

라고 해가지고 부서별로, 그니까 저희 유년부같은 경우에도 한 세 분이나 네 분 정도만 강습회를 가고, 그리고 이제 강습회 끝나면 이제 뭐잉주잉에 한 번씩 모여서 율동을 배우고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하실 줄 아셔야 되니까. 해서 율동 배우고 뭐 공과지도 이렇게 따로 하고 공과지도같은 건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하시고 해서 대개 여름성경학교 때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뭐 레크레이션, 율동하는 거, 그래서 뭐 또 그룹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는 코너학습 같은 거 하는 것도 있어 가지고 레크레이션 같은 경우도 따로 파트가 나눠져 가지고.

그럼 여름성경학교는 주로 어디서 해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하게 되면 며칠 정도 하나요?

주로 교회 안에서 하든지, 어디 수련원 같은 데 빌려서 나가든지 해요. 보통 2박 3일 정도 하는데 이제 유년부 같은 경우는 1박 2일로 하거든요. 작은 교회 안에서 자요. 유년부 방바닥이 보일러 깔아져 있어서 그것도 되고, 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면, 아는 부서는 거의 그리고 여름이니까 크게 지장도 없고 하니까 한 부서는 교회에서 자고 다른 부서는 거의 나가서 해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선생님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긴 하지만 그래도-----(웃음)

교사 02 (오××)

교리교사를 한 지는 얼마나 되며 주일학교 예산은 교회예산의 몇 %나 됩니까?

저는 20년 정도 교리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예! (웃음) 이런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있구만씨. 대학 다닐 때는 더 열심히 했수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길거리에도 자주 나갔고 예!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수다게.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제대로 못해예. 그래서 맨날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사는데 예, 시간이 나는대로 더 열심히 하고 싶어마씨.

예산은 전 교우에게 공개됩니다. 몇 %인지 알려면 예산 썼던 거, 결산한 거를

보면 알 수 이서예. 교회에서 예산결산서를 모든 교우에게 나누어줍니다. 나도 집에 그거 있는데 필요하면 갖다드릴 수 있쑤다.

주일학교의 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톨릭교회에서는 초등학교에서처럼 학년별로 나누어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 우리 교회에서는 부서를 조직되어 있는데 아주 세분화되어 이서예.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여기까지가 6학년까지이고, 중학생부, 고등학생부를 이루어졌주마씬. 또 대학부도 나이별로 1, 2, 3부를 이루어졌고, 청년부도 나이에 따라서 청년1부, 청년2부를 나누어져 이서마씬. 거의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교회는 규모도 그렇고 시설면에서도 제주도에서 가장 큰 교회라예.

그럼 신도수는 얼마나 되나요?

총 신도수가 대략 2,000명 정도? 이렇게 말해도 될건가(웃음). 등락낳락 해가지고------.

그 2,000명 중에 어린이는 포함되지 않아예! 어린이는 굉장히 많아 마씬. 유치부가 1, 2학년인데 한 100명은 넘주마씬. 거의 200명 목표를 잡하는 걸 보면. 유치부가 200명 목표다 생각하고 잡하는 걸 보면 어린이 부서는 굉장히 많아마씬.

주일학교부에는 각 부마다 담당 목사님이 계시고, 부장, 부감, 교사가 있거든예. 유년부는 유년부 담당 목사님이 계시고, 그 부서마다 담당 목사님이 계셔마씬.

교리교사가 되고 싶으면 우선 희망을 해야 되겠지만, 하겠다고 희망하는 사람을 자르진 않아예! 우선 무보수이기 때문에 헌신과 희생이 필요허고, 이제 들어오시면 그 자격기준에 따라서 그 담당을 정합니다. 이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을 것인가 아니면 서무나 서기를 맡을 것인가 정하주마씬. 새로 어린이가 들어오면 출석부에 기재도 하고 이름표도 만들어줘예. 새로 들어온 어린이가 예를 들어 유치부에 어린이가 들어오면, 유치부가 10반이라면 한 반에 10명 이내로 한 교사가 담당하도록 하는데, 선생님 한 분이 그 정도만 담당하는데 교사도 멀은이 돈독한 교사에게 교사의 직분을 맡기는 거니까 만약에 쪼끔, 경험이 부족하거나

가르칠 능력이 부족한 교사나 각자 자기 재능에 따라서 서기를 맡을 수도 있고, 새로 들어온 아이들을 위한 신입반이 있는데 신입반 교사가 되기도 하여 예. 신입반 담당선생님은 신입아동을 4주 동안 가르치는데 아주 기초부터 우리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법을 가르치기도 하고예.

주일학교 교사들은 교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주일학교 교사에 대한 특별한 대우는 전혀 어서마씸(웃음). 주일학교 부서에서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주일에 3,000원 정도씩 내서 그걸로 회식같은 거 하거나 부장선생님이 가끔 회식 시켜주기도 허고예. 부장은 교회에서 인명을 해쳐야 하기 때문에 안수집사님이거나 장로님이 맡게 되거든예! 그분들이 월급도 좋으시고 또 형편상 경제적인 여유도 있는 분들이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사들을 대접하는 경우가 많아마씸. 또 자체적으로 돈 모아서 자체경비로 회식하기도 하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주일학교에 나오는 어린이들은 대부분 부모가 데려옵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옆에 살면서 시골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신도가 많고, 예산도 풍부해서 봉사할 사람도 많기 때문에 시골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요일은 우리 교회에 나오고 주일엔 시골교회에 가지요.

신도들은 주일과 수요일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금요일은 구역예배를 봅니다. 같은 구역에 사는 신도들이 각 가정을 돌면서 예배드리는데 이 때에는 아이들도 함께 참석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것이지요. 저녁 7시 30분부터 8시 30분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각 가정의 기도제목을 내놓고 기도합니다. 그 가정에서는 간단한 다과를 대접하는데 이 때 서로의 가정사도 나누곤 하지요. 또한 교회에서 찬양대회 같은 걸 하면 구역별로 모여서 함께 준비하면서 서로 많이 친해지게 됩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공부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게 된다. 주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많이 구역예배에 참가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다른 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아주 외곬수라예! 오로지 유일신, 예수님만이 유일하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에는 가톨릭도 인정하지 않았주마씸. 저도 그렇게 믿어 왔지만----(웃음).

주일학교에 자모회는 없습니까?

자모회가 뭔가? 아-, 특별히 자모회가 있는 건 아니고 예! 하지만 뜻있는 학부모는 개인적으로 간식을 사다가 아이들에게 주기도 하고, 간식비를 지원하기도 허여마씸. 또 가끔 교사들을 대접하기도 합니다게. 이런 자유스러운 속에 스스로 나서서하는데 모임같은 건 어서예. 예전에는 교회에서 국수를 공짜로 먹기도 했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한 그릇에 1,000원 하다가, 너무 힘들고 예배시간에 봉사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도 해서 교회에서 운영하지는 않고 어느 집사님에게 넘겨버렸수다. 선생님들은 가끔 자기반 아이들을 데령강 핫도그나 김밥을 사주기도 헙니다뭐.

작은 교회에서는 목사님 가정에서 주일마다 성도님들을 대접하곤 하기도 허여마씸. 그런 교회는 사모님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봉사허여마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교사 03(강××)

언제부터 교리교사를 했지?

직장 다닐 때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지 못해서 교리교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다가 직장 그만 두고 나서 쭈욱 8년 동안 교리교사를 하고 있어. 나같은 사람도 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고맙지. 우리 교회에서는 학력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희생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교리교사를 할 수 있어. 나는 이 직분을 기쁘게 수행하고 있다게.(이 교사의 학력은 중졸인)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계속할거야.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서만 완전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지. 응,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건 시댁이 개신교여서 결혼하면서 다니기 시작했져게. 직장 다닐 땐 주일예배도 제대로 참석 못해시녜. 구역예배는 갈 수 있으면 꼭 나가고 했지만. 직장 그만둔 다음날부터 성가대를 하기 시

작했고, 한 3개월 후에 교리교사도 하게 돼어시네. 사람들이 나오라고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그리고 구역장, 여전도회 회계, 성가대도 하고 있져게. 나같이 노래도 못하는 음치가 그저 빈 자리 채우는 거지맏.(웃음) 주일날은 아침 여덟시 반에 교회에 나와서 교사모임 가지고, 초등부 공과공부 가르치고 나서 교사모임 끝나면 11시 예배 드리고, 지하식당에 가서 윤기 좀 해서 성가연습 헌다게. 오후 3시에 오후예배 끝나서 집에 가면 4시 반 정도 되어가. 집에선 그냥 전신 차려둥 오면 자기대로 찾아 먹고, 뭐랜 볶평도 안헌다게. 그러니까 집엔 잘 못허여.

공과공부 끝난 후에 교사모임을 하는데 우리 초등부 담당 전도사님이 다음주에 가르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우리 교사들은 그걸 다음주에 가르치고 허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데는 별로 어려운 건 없어.

구역예배는 매주 금요일에 구역별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인다게. 구역장은 그날 오전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자기 구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화해서 몇 시에 어디서 모이는지 연락해.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집에서 모일할 때만 참석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 모두가 함께 참가해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가정일도 나누면서 친해진다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교회는 모두 같은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교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만들어서 소속교회에 배부해 준다. 이를테면 국정교과서 같은 형식이다.

주일학교 담당목사님이 서울에 가서 교육을 받아와서 우리 교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 교리교사 되면 일년에 한 번 12월에 5일 동안 하는 교사대학에 참가해야 되거든. 그 교사대학에서 일년동안 교사로서 해야 할 일과 교재내용에 대해서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다게.

한 사람이 4가지 직분을 맡아서 하고 있다. 그렇게 시간과 돈을 바치면서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이 교사의 학력은 중졸이지만 겸손하고 믿음이 강하다. 다른 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교사 04(강××)

교리교사는 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95년부터 했어요. 그 전에는 시골 교회에 아빠랑(남편) 다니다가 그 교회는 별로 정이 안가서 여기 나오게 되었지요. 나는 천주교에서 영세도 받았는데 결혼하면서 교회에 다녔어요. 천주교 다닐 때는 고백성사 보는 것 때문에 잘 가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별로 친절하지 않고. 그런데 교회 사람들은 아주 친절해요. 그리고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정말 좋아요. 난 천주교 다닐 때에는 남을 위한 기도 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언숙해서 성당에 정이 가지 않았었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주일날 새벽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오지만 마음은 훨씬 편하고 좋아요. 집에 돌아가는 시간은 보통 오후 4시정도 되지요. 주일은 오직 하나님께 봉헌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좋아요. 그리고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게 그 기도의 힘이 정말 느껴져요. 그래서 더 열심히 교사도 하게 되었어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난 아직 많이 부족해요. 이 선생님에 비하면(옆에 있는 교사03을 가리키며) 계속 열심히 하고 싶어요. 아참, 우리 아래층 사는 청년 인도해서 이제 4주째 나왔는데 참 신기해요. 술만 마시면 밤새도록 잠 안자고, 자기 엄마 죽으라고 협박하고 그러는데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많이 느끼나 봐요. 그 청년이 회개해서 교회 열심히 다녔으면 좋겠어요.

교사 05(양××)

- 교리교사를 한 지는 얼마나 되며,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저는 교리교사 한 지가 한 35년쯤 됩니다.(두번째 면담에서는 30년 했다고 함) 주일마다 8시 30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리준비도 해요. 주일이 되기 전에 지난 주에 결석한 어린이한테 전화도 하지요. 난 체험을 했어요. 딸만 여섯인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모든 일이 잘 되었어요. 난 70세까지 교사의 직분을 행할

겁니다.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공과공부 준비하고 10시 20분부터 10시 50분까지는 기타 사항을 논의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적기마다 짭니다. 그리고 부별로 담당목사님이 계시지은. 어떤 때는 교육목사님을 초빙할 때도 있어은. 교사들은 옛날에는 같은 부에서 3년밖에 못했어은. 3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했지만 지금은 자기가 맡고 싶은 부에 계속 남을 수 있어은. 우리 개신교는 살아있는 종교지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건 우리 개신교밖에 없어은. 우리 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건 언더우드목사님과 아펜젤러에 의해 의학선교를 했어은. 불교를 받아들인 나라는 미개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보세은. 그러니 선생님도 교회에 나오세은.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 교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중은하지은. 다른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든 종교예은. 영원이란 게 없어은. 보세은. 하나님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잘 살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못 살아은. 인도를 보세은. 우리나라도 모두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묵은이지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은. 아이들이 오직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막 떠드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으니까 난 신경 안 씁니다.

나는 신입반을 맡고 있는데 신입반은 아무나 못맡아은. 오랜 경력과 믿음이 있어야지은. 그리고 나는 신입반 아동용교재가 맘에 안들어서 이렇게(교재를 보여주면서) 내가 만들었어은. 어른들 교재를 쉽게 만든 거예은.

교역자 06(박××)

제가 천주교의 커리큘럼은 잘 모르겠는데, 개신교는 주일학교 커리큘럼이 거진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 이제 저희 교단 것만 이야기를 하면, 개신교는 제일 중요시여기는 것이 신앙의 확신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 다음에 신앙을 어떻게 경험시키느냐를 중시하지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경험을 하도록 계속 교회 교육프로그램들이 짜여져서 그것이 유치부서부터 이제 청년부까지 일관성있게 가지요. 그래서 특히 이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나 구원의 문제는, 글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판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지 않느냐,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종교적인 공포감이나 이제 그런 것을 주는 게 아니냐,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의 연령이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까지는 상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애요. 어떤 행위를 하면 좋아하고, 어떤 행위를 하면 벌 받는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문제에서 한치시켜서 볼 때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교나 공과공부할 때 천국과 지옥의 문제만큼 아이들에게 크게 감화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종교적인 언어가 많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그래서 성경의 내용, 말씀의 내용, 성경의 내용이 결국 그 아이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형성한다는 것은 개신교의 공통적인 신앙고백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한꺼번에 잘 가르칠 수 있는 모든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머릿속에 깊숙이 집어넣느냐, 모든 프로그램이 여기에 맞춰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구요, 다만 이제 80년대 넘어오면서 저희 교단에서는 반성이 일어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지식도 많이 알고 있고, 신앙적인 지식도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삶이 모범적이지 못하다라는 이제 반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생활을 어떻게 가시킬거냐, 그래가지고 공과에 그게 들어왔어요. 전에는 계단 공과라고 했거든요. 그니까 1단계 끝나면 2단계, 2단계 끝나면 3단계,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너무 지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과 삶이라는 게 10년, 말씀과 삶 그러니까 그게 원래 목표는 복음적인 삶을 목표로 한 건데, 정의니 뭐 이웃과의 평화니 이런 거였는데 그 삶이 종교적인 삶에 머물더라는 거죠. 아이들이 뭐 밥 먹을 때 기도하느냐 안하냐, 주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 가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고 삶을 평가하드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삶도 복음을 삶으로 끌어들이는 교육 목표에 미진했다고 보고 80년대서부터 우선 이제 저희 교단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속한 직장이나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일반사회문제들이 공과내용에 들어옵니다. 저희가 다루는 주일학교 공과에도 보면 왕따 문제나 빈부격차의 문제, 장애인의 문제, 이런 주제들이 공과내용 속에 들어와서 보강은 되었지만 역시 핵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궁장히 반복적으로 교육도 하지만 개신교도들 가정이 신앙이 그거니까, 핵심이 그거니까 아이들에게 계속 확인합니다 집에서.

성인들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듣기로는 가톨릭이 어른들 교육은 더 잘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부흥회, 성경공부, 교육할 때 보면 우리 있지만 뭐 하든지 간에 복음의 문제 그 신앙의 구원의 문제를 존재로 합니다. 그거를 확인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것만을 위한 집회와 한번씩 꼭 있지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이건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죠. 이건 유년부 공갑니다. 초등학교 1·2학년 애들이 공부하는 거죠. 요건 이제 소년부, 5·6학년선생님거구 이건 애들 거예요. 그니까 전에는 여기에 말씀과 삶이라는 교육목표로 되어 있었어요. 그니까 이제 공과내용은 성경의 내용, 그니까 이건 주제죠? 신앙에 대한 언약의 내용, 교회에 관한 것이구요, 같은 주제로 유년부에서 소년부로 갈수록 깊이가 깊어져가는 거지요. 이렇게 공과공부는 한 주에 한 과씩 공부합니다. 공과공부는 주일학교에서 쓰는 교과서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주일학교 교육은 공과하고, 여름성경학교·겨울성경학교, 수련회가 주축이구요, 그 다음에 절기 때 절기교육이 있습니다. 전에는 절기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으로 넣어왔어요. 요즘엔 많이 강화시키고 있지요. 기독교문화를 평상시 학습에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서 그런 거죠.

개신교가 타종교에 대하여 배타적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한 삶의 여지들이나 신앙고백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들이 계속 진화하고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해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성, 확신을 과연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느냐는 고민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끝도 없이 확신, 신앙의 확신과 그 다음에 다양성이라는 볶안 사이에 그 끊임없는 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많은 핍박 속에 있었던 종교고 그 다음에 한국문화에서 어쨌든 위래 아닙니까? 그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니까 뭐 가톨릭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리스도교,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뭐 이 땅에 있었던 볶교도들이, 볶교가정들이 만만하게 그냥 인정해 준 건 아니거든요. 무한한 핍박과 박해를 했단 말이죠. 그것을 극복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강성이랄지 이런 부분이고, 개신교가 독선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사회일반이 가지고 있는 비판은 억울한 면이 있다. 왜냐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계층이나 어떤 종교든 독선적이지 않은 건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볶교가정에 기독교교인이 들어가면 마치 기독교가정에 볶교도가 들어왔을 때와 똑같은 박해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마치 볶교도들은 또는 천주교도들은 더 관용이 있고, 이렇게 보는데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인상적으로 보면 그거는 개신교가 가진 폐단이 아니고 한국사회가 가진 독선과 폐단의 문제지 개신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개신교가 가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왜냐면 지금은 옛날같이 무조건 핍박받는 세대는 아니고, 그냥 그 교리적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여유가 없이 배려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반성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공과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수정되고, 현장에 있는 일선 기독교 교육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실행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확신과 볶안 사이에 있는 다양성을 끌어들이려면 어느 정도 확실히 그 무엇을 받아야 하고 또 내가 정체성을 확실하게 지킬려면 그 집단이나 어떤 교리든지 특히 아이들에게는 설명해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니까

이 교재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쉽게 접근할려고 애를 쓰는데 이건 댓가가 뭐냐면 교훈과 진리를 의식하한다는 거죠. 그니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다양한 여지의 문제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헌, 교회가 경헌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신앙적인 경헌을. 그 경헌이라는 것이 또 자기를 이렇게 가두어놓는, 이건 내가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체헌이죠. 내가 겪은 거기 때문에 그 경헌은 침해받고 싶어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게 개신교도들이 독파력을 가진 가장 큰 강점이면서 또한 우리 사회에서 왕따당하고 독선적인 평가를 받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장점이면서 단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식이 내면화되는 건 어디서 기인한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반복됩니다. 그니까 사실상 얼마나 깊이 있고 세련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장년부 공과까지 보면 한 주제 한 주제에 맞춰서 청년부까지 아주 일관성있게 갖고 가지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는 본으로, 계속 교육을 받죠. 본을 보여라, 본을 보여라. 그리고 특수한 수련회나 이런 걸 통해서 경헌하게 해요. 그니까 지적으로 배운 것이 경헌으로 증명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목사님께서 주일학교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지적인 것을 강조하지는 않구요 선생님들하고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확보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여깁니다. 그니까 아이들이 그 공과의 내용은 계속 반복해서 배우지만 결국 성경의 내용,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싶은 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헌하느냐면 공과나 성교의 지적인 내용이 아니고 관계 속에 있는 선생님의 사랑과 관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체헌된다고 봅니다. 정확한 공과의 전달도 중요하고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관계성이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주고 그런 거죠.

교사는 어떻게 뽑아 쓰십니까?

지원하지요. 교사는 지원에 의한 거죠. 그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사퇴기는 어렵습니다. 지원자가 많아서. 그리고 안 되는 교회일수록 목회자가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교사를 하나의 봉사라고 보는데 교사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여깁니다. 왜냐면 교회에서 봉사를 통해서 신앙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신앙생활 얼마 안된 사람이라도 교사 하겠다고 하면 받아줍니다. 어차피 같이 배워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많이 안아주는 교사가 공과를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좋은 교사이기 때문에(웃음)

교사를 1, 2년 하다보면 다 노하우들이 있구요, 앞으로 교육은 어쨌든 소그룹에서 결판이 난다고 봅니다. 개신교는 소그룹,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 이건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게 뭐 영원히 있게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계속 세속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그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라도 아이들을 100명씩 갖다 놓고 설교를 통해 회심시키고 신앙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 때는 그런 게 통했는데 지금은 안 통합니다. 확실히 보이는 것도 많고 너무나 자극적인 상황에서 크기 때문에. 그래서 소그룹, 소그룹으로 가구요, 될 수 있으면 한 아이들이 다섯명을 넘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지금 저의 유년부도 85명에서 95명이어서 5명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데

가톨릭교회에 비해서 개신교회는 아주 자유스럽고 열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전전 재미없어진다는 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설교시간에 그냥 말을 했지만 요즘 잘 나가는 목사는 설교시간에 절대로 말을 때우지 않습니다. 이제 프로젝터에 쏘아서 그 우리집 사람도 유치부 하는데 동화책을 크게 디카로 찍어서 프로젝트에 씁니다.

교역자 06(민××)

이분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의 선교사인데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직분도 맡고 있다. 이 교회의 요청으로 초등부 담당교장으로 초빙되어서 주일마다 파견 나오는 교육전도사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대부분 이제 삶을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 이렇게 앞으로의 세계라든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스스로는! 이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심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스스로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를 굉장히 주목해서 생각하고 궁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종교가 어쩌면 우리 인간들을 평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일차적인 목표는 평화롭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종교 때문에 많이 다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처럼 한다면 어디에 가든 내 종교만이 아니고 그래, 너도 인정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라면 아 정말 저런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 입에서 보면 툭하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얘기 튀어나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굉장히 편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 어떤 종교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구요, 그런 확신이 없을 때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이, 신앙을 갖는다는 목적이 이러한 현재적인 삶에 있어서도 목표를 두지만은 또 영원한 것을 위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한계에 놓였을 때에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진정으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전능한 그 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것이 주관이 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 스스로가 자기 것을 취하려는 본능이 있구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우선권을 두고 있다는 본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행복을 함께 누리는 거는 내 스스로는 안된다는 생각이예요.

다른 종교에 대한 전도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그렇게 배타적이거나 상종하기 싫다 이런 건 아니구요, 다만 그분들에게도 다가가서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생각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타적인 거 뭐, 예를 들어서 스님과 마주앉지 않는다 이런 자체는 아니구요. 그분은 그분의 나름대로의 선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고. 하지만 진리라는 거는 예전에나 지금이나 어느 곳에 가서든지 똑같이 적용돼야 진리인 것처럼 불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을 때에 어느 것이 진리인지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분명히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구요, 어떤 종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얻었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무엇이 계시다면 그것이 그 나눔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해되지 않고 선택되지 않는데 그냥 내 게 처고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앉아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전능한 힘이 있다면 그 전능한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또 우리가 가장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런 당신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나눔 속에서 분명히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교리교사들은 어떻게 임명제인가요? 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자원이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뽑으시죠. 기준은 크게 적용되는 건 아니구요, 세례받을 때 예수를 영접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어떤 면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런 것보다도 아이들 곁에 가서 함께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라면 지식전달이 아니니까, 삶을 나누는 그런 교육이니까 충분히 인명되죠.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인 것, 말씀하신 대로 교리적인 데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지식전달에 불과하구요,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성경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그 말씀에 녹으면서 살아봤더니 내 마음이 이랬고, 이런 평안함이 있더라. 그런 경험적인, 그래서 그냥 이상적으로 그리고 자기도 경험되지 않고 인생이 너무위죽겠는데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말씀을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봤더니 내 안에 이러한 유익이 있더라 하는, 삶을 나누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리교사들이 이 주일을 위해서 주중에 한 번 모이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이제 그 공과라고 해서 책자가 나와있어요. 교사들거 하고 학생들 것이 나와 있는데 예배 끝나고 교사회의를 할 때 제가 다시 썬머리를 해줘요. 그걸 가지고 일주일동안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오셔서 가르치죠. 공과공부 후에 교사들은 다시 모여서 회의도 하구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기본 테마는 같아요. 그렇지만 전달되는 내용은 조금 다르겠죠.

아이들에게 한과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은 소그룹인 거 같아요. 그룹별로 모여가지구요, 주중에도 구역예배라고 해서 근처인날 특별히 거주지별로 모이거든요. 거기에서도 같이 예배드리고 그곳에서도 인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서로가 기도해주고 들어주고 힘든 것도 도와주고 해요. 구역마다 다 리더가 있지요.

믿음의 정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보다는 믿음을 얼마만큼 지켜나가느냐에 관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 좋다고 평가되었던 분들도 예를 들어서 운명하실 때나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폐라는 생각이 들구요.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머리에서만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얼마만큼 녹아있는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알고 있어도 그게 내 삶에 적용이 안되면 말짱 헛거잖아요. 그 녹여내는 작업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요.

교리교사들이 기쁘게 봉사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이렇게 함께 있어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기 싫지만, 여전히 할 수 있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끈으로, 공동체로 묶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능수능란하고 교리를 잘 알고 신앙이 깊어서 열심히 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연약하지만 이 무리 가운데에서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데, 같이 있으니까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내 체면 때문에라도, 그래서 나와서 함께 하면 그 시간에도 은혜받고, 내가 스스로는 잘 하지 못하지만 끈들이 연결이 돼서 함께 나온 것로 해서, 나 혼자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기지요. 그럴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하드래도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또 내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공유할 때 내가 혼자 하나님한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똑 같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게을러서 나태했다가도 그게 그냥 허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엎굴을 들지 못하고 엎어져있는 게 아니고 옆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에도 보니까, 그런에도 불구하고 또 하니까 아,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고 아 나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고 또 힘을 내서 살 수 있을 거 같아요.

성경말씀에 우리들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도, 함께 나가자고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진 못하지만, 이러한 집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어린이 관찰 및 면담 내용)

제주시내 J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불교를 믿는 어린이 몇 명이 석가 탄일에 절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 다니는 한 어린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너네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교회에 다니는 다른 어린이들 몇 명이 우르르 달려가서 한 마디씩 했다. .

본 연구자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물어보았고 어떤 어린이는 아빠가, 또 어떤 어린이는 교회선생님이, 또 다른 어린이는 목사님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간다’는 얘길 해줬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다른 어린이 15명에게도 같은 물음을 던졌는데 모두들 같은 대답이었다.

어린이 07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악마’라고 했다. 그 아이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엄마와 함께 성경공부를 한다. 학교공부는 하위권이지만 엄마는 그 아이가 목사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그 아이에겐 교회에 가는 일과 성경공부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 아이의 엄마도 가정일 보다 기도하고 교회에 가고 성경공부 하는 걸 우선으로 삼고 있다. 친척들과도 별로 어울리지 못한다. 그 아이는 오로지 하나님만 믿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다 된다고 믿는다. 방학 때에는 2차례나 태국으로 어린이전도단이 되어 전도여행을 다녀왔다. 자기 용돈을 모아서 선물을 사가지고 태국 어린이들에게 주기도 했다. 평소에도 자기가 가진 돈이나 물건을 불쌍한 사람을 돕는 데 아끼지 않고 내놓는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어린이 07(김××)

××야,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하나님나라에 갈까? 믿지 않고서도 착한 일 하는 사람도 많잖아.

선생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악마예요. 절대 하나님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아빠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빠는 맨날 술마시고, 교회는 안 간대요. 우리가 교회가는 걸 아빠는 싫어해요. 그래서 엄마랑 맨날 싸워요. 엄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하고 맨날 성경공부하고 새벽기도에 가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겠구나.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성경공부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방학 때 전도여행도 갈 수 있어요. 저는 커서요 목사님 되고 싶어요.

어린이 09(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 어린이는 다른 아이들한테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가!”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다. 유심히 8개월 정도 관찰한 결과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에 차 있고, 어디서든지 다른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갈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 같은 반 친구 3명을 교회에 데리고 갔으며 계속 데려가고 싶다고 한다. 교회 가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며 토요일에는 “내일 교회 갈 거”라는 얘길 자주 한다.

이 아이의 부모는 고향이 서울이며, 그 교회 A주일학교 교사이다. 나이는 둘 다 30대 후반이다. 아빠의 직업은 의사이며 엄마는 전직 고등학교교사이면서 현재 미술학원 원장이기도 하다.

H야, 엄마아빠도 교회 다니시니?

예. 우리 엄마아빠는 주일학교 교사세요. 아빠는 3,4학년 선생님이구요, 엄마는 5,6학년 선생님이세요. 우리 교회 선생님이 꼭 하나님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아빠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아서 지옥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뉘우치면 천

국에 갈 수 있대요. 엄마아빠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윗이 용기가 있어갖고 어떤 무서운 사람을 이겨냈다고.

주일날이면 엄마아빠가 교회가자고 하시니, 아니면 네가 먼저 가자고 하니?

우리 가족 모두가 7시에 일어나서 교회갈 준비 해요. 엄마아빠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셔서 모두 9시에 교회 가야 하니까 그 때부터 준비해요. 저는요, 누가 깨우지 않아도 제가 스스로 일어나서 준비해요. 동생이랑요.

일요일인데도 그렇게 일찍 일어나려면 힘들지 않니?

아뇨. 힘들지 않아요. 교회 가는 게 좋고 기다려져요. 제가 교회 가서요 목사님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아참! 목사님은 우리랑 같은 아파트에 사셔요. 그리고, 교회가면요 재미있어요.

뭐가 재미있는데?

목사님 설교랑 공과공부 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거 끝나서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재미있어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공과공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말해 주겠니?

그 있잖아요, 다윗이 돌멩이를 갖고 거인과 싸워서 이긴 거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너는 어떤 때에 기도를 하니?

제가 속상할 때 그리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구요, 기쁠 때도 해요. 속상할 때는 슬프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구요, 기쁠 때는 감사기도를 해요. 저는 말 안듣는 친구들도 모두 교회에 데려가고 싶어요. 제가 기도해서 말 잘듣게 해주면 돼요.

엄마아빠는 어떤 때에 기도하시니?

집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끝나고 목사님께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님께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고요. 목사님과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기쁠 때는 가서 감사해요. 감사예배는 설날, 부활절, 성탄절이예요.

어린이 10(홍××)

이 어린이는 아직 1학년이어서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벌써 자신의 종교에 대해 절대성에 가까운 인식을 하고 있다. 이 어린이의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두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 엄마는 주일학교 교사이다.

××야, 일요일 아침 일찍 교회가려면 힘들지 않니?

아니요. 안 힘들어요. 내가 동생 데리고 가요. 엄마가 태워줘요.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니?

예. 꼭 믿어야 해요. 우리 목사님이 말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했어요.

너는 그걸 믿니? 예.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하나님나라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못가요!(강한 어조로 대답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어린이 11(고××)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게 싫을 때는 없니?

아니 재미있어요. 교회 가면요 예배 끝나고 친구들과 놀고요, 맛있어도 먹을 수 있어요.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더 좋아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정말 지옥에 갈까?

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예수님은 착하니까 예수님 믿어야 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일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도요, 어떤 부자가 가난한 거지한테 빵 한조각만 주었다면 하늘나라에 갔을 텐데요~ 안 주니까 지옥갔어요.(성서 내용을 알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